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성인의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榮養教育專攻

韓 志 受

2022年 8月

# 제주지역 성인의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蔡 仁 淑

韓 志 受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 年 6 月

韓志受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박 성 수



委 員

채 인 숙



委 員

홍 기 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22 年 6 月



A Study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Health  
Functional Food by Consumption value of Adults in Jeju

Ji-Su Han  
(Supervised by professor In-Suk Cha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2. 8.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표 목차 .....	ii
국문요약 .....	iv
<b>I. 서론 .....</b>	<b>1</b>
<b>II. 이론적 배경 .....</b>	<b>3</b>
1. 건강기능식품 .....	3
2. 소비가치 .....	4
3. 선택속성 .....	5
<b>III. 연구 내용 및 방법 .....</b>	<b>7</b>
1. 조사대상 및 기간 .....	7
2. 조사내용 및 방법 .....	7
3. 자료의 분석 및 통계처리 .....	9
<b>IV. 연구 결과 및 고찰 .....</b>	<b>10</b>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	10
2.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련사항 .....	12
3.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	14
4.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	19
5.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	63
<b>V. 결론 및 제언 .....</b>	<b>65</b>
<b>VI. 참고문헌 .....</b>	<b>68</b>
Abstract .....	71

##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	11
표 2.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 .....	13
표 3.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요인분석 .....	15
표 4. 소비가치 군집분석 .....	16
표 5.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소비가치 .....	18
표 6.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	20
표 7.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	21
표 8.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	23
표 9.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	26
표 10.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구매자 .....	28
표 11.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	30
표 1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	32
표 13.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	33
표 14.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	35
표 15.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	38
표 16.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	41
표 17.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	44
표 18.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 .....	46
표 19.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	48
표 20.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	50
표 21.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	52
표 22.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	55
표 23.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	58
표 24.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	59
표 25.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	61
표 26.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 .....	63
표 27.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 .....	64

## 제주지역 성인의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제주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련사항,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에 거주 중인 성인 346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7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4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총 30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Program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내용별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군집분석,  $\chi^2$ -test,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성별은 여자 59.8%, 남자 40.2%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22.3%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64.5%, 현재 거주형태는 자택 90.4%, 가구 형태는 4인 이상 가족 42.2%, 직업은 전문직이 29.6%, 월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건강관련 사항은 음주 빈도는 한 달에 2-4번 30.6%, 흡연 여부는 피우지 않는 대상이 79.1%, 하루 취침 시간은 5-7시간 미만이 68.1%,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조금 느끼는 편 56.8%, 건강 관심 정도는 '보통이다'가 51.5%,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는 '보통이다'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요인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군집 1은 상황적,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소비가치가 높게 나타나 고관심가치집단, 군집 2는 군집 1에 비해 상황적,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소비가치가 낮게 나타나 저관심가치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일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성별( $p < .001$ ),

연령( $p<.001$ ), 최종학력( $p<.05$ ), 현재 거주형태( $p<.001$ ), 가구 형태( $p<.05$ ), 직업( $p<.01$ ), 월 소득(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조사대상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에 있어서는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 경험의 경우 ‘있다’의 비율이 저관심가치집단(6.9%)에 비해 고관심가치집단(23.1%)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p<.001$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는 ‘효과 있다’의 비율이 고관심가치집단(71.9%)에서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52.9%)에서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다섯째, 조사대상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에 대해서는 홍삼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32.2%)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63.7%)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저관심가치집단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43.1%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p<.05$ ).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에 있어서는 홍삼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에서 20만원 이상인 비율(7.5%)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67.6%)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는 제품성분 4.60점 (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실제효능 여부(4.59), 제품의 과학적 자료(4.48), 섭취와 휴대의 간편성(4.23), 제품의 브랜드(3.69), 향(3.66), 맛(3.61), 광고 여부(3.14)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속성 전체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4.06)이 저관심가치집단(3.89)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있어서 2개의 군집이 추출되었고 군집별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에 차이를 보여 이를 고려한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자료 개발 등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관심가치집단과 저관심가치집단이 맛, 제품의 브랜드, 광고 여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건강기능식품업계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I. 서론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가구 형태 및 고령화된 사회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개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조에 의하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기능성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정의된다.<sup>2</sup>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의 별도 인정 절차가 필요치 않는 고시형 원료와 식약청이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을 개별적으로 인정한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누어지는데 고시형 원료는 영양소 28종과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지질류, 당·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단백질류 등을 포함한다.<sup>3</sup>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세계시장 상위 품목은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총 매출액은 3조3,254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보고에 따르면 총 인구의 약 80%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품목으로는 홍삼 제품이 1위였고, 비타민, 미네랄보충제, 개별 인정형 원료 제품 순이었다.<sup>4,5</sup>

이처럼, 현대 사회에는 매우 다양하고 수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분류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보조식품이 아닌 약품으로 오인하고 섭취하는 모습도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과대광고가 보조식품이 아닌 효능 및 효과를 수준 이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약품으로 인식하게 하여 섭취 및 사용하는 것이다. <sup>6</sup>

식품 선택 시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sup>7</sup> 소비가치란 소비자의 사고 및 행위를 이끌어내는 판단기준의 집합이며, 소비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개인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욕구이며,<sup>8</sup> 선택속성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상품의 특성을 의미하며 의사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sup>9</sup>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련사항,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조사

하여 건강관련사항과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및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자료 개발 등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건강기능식품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등 건강과 관련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음식의 섭취로 인해 영양과다는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sup>10</sup> 또한, 노화가 오면 면역기능이나 소화 기능 저하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질환 증가와 질병예방의 개념으로 자기관리를 위해 식품 중 하나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된다.<sup>11</sup>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고시된 원료와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다. 고시된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원료이며 개별인정 원료는 개발한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시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정해 놓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영양소 약 95여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다. 개별인정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로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일한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기능성 원료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류와 같이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 예방하는 것이 아닌,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 유지와 개선을 말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으로는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 기능이 있다. 영양소 기능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의 성장 및 증진을 위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다. 비타민 및 단백질, 식이섬유 등의 기능이 있다. 생리학적 작용 등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기억력 개선, 체지방 감소, 면역기능 등 30개의 기능성이 있다. 그리고 질병발생의 위험감소 기능은 식품의 섭취로 질병 발생 또는 건강상태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이다.<sup>12-13</sup>

성인들의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를 조사한 연구<sup>14</sup>에서는 비타민보충제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지역 직장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섭취실태를 조사한 연구<sup>15</sup>에서는 비타민보충제(81.76%), 홍삼 · 인삼(39.41%), 오메가-3지방산(35%)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의 56.8%가 건강기

능식품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중인 조사대상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지속적인 섭취에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정보 요구도 분석을 조사한 연구<sup>16</sup>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양보충’이 51.5%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질병예방’이 27.0%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20~30대는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40~50대는 영양 보충,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속적인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2. 소비가치

가치는 많은 연구자의 관점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되고 있고, 가장 보편적인 개념들 중 하나이다.<sup>17</sup> Pitts(1983)는 가치의 태도와 바림직한 행동과정에서 일반적인 신념으로 인식될 수 있고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추상적이고 중심적 평가 신념이며 근본적인 동기의 목표라고 하였다.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의 모든 측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비자 행동분야에서의 가치는 가장 광범위한 소비 행동과 그 관련 소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구성개념으로 인식된다고 말하였다.<sup>18-19</sup> Ahtola(1985)는 소비자가 지각된 가치에 따라 실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분류하였다.<sup>20</sup> Sheth(1991)의 소비가치 이론에 따르면 소비가치는 5가지 요인으로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정적 가치, 인지적 가치로 구성되며, 첫 번째로, 기능적 가치란 제품의 물리적, 기능적, 실용적 특성에 의해 획득하는 지각된 효용을 말한다. 두 번째, 상황적 가치란 특정한 상황 또는 물리적 환경에 의해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의미한다. 세 번째, 사회적 가치란 사회적 이미지 또는 집단과 제품이 관련되어 획득하는 지각된 효용을 말한다. 네 번째, 감정적 가치는 제품이 감정을 특정하게 일으키거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뜻하고, 다섯 번째, 인지적 가치는 지식적 욕구 또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에 의하여 획득되는 지각된 효용을 의미한다.<sup>21-22</sup> 이처럼, 가치는 마케팅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신념으로서 생활의 영위를 위해 소비 행동을 유발, 선택하게 할 수 있고,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가

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하고 소비활동과 관련지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소비자 개인의 소비에 대한 사고와 소비행위를 결정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때 소비자는 개개인이 상황에 따라 추구하는 소비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떠한 제품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가치를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3-25</sup>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차명화, 김유경 (2008a) 연구<sup>7</sup>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와 선택에 사회적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내고 있고, 노원희 외 3명 (2012) 연구<sup>8</sup>에서는 소비가치가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가치는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통하여 제품 구매 시 관련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선택속성

속성은 일반적으로 상품이 가지고 있는 무형 또는 유형의 특징을 의미하며, 제품은 이러한 속성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력은 미치는 속성은 인지적 학습이론에 의해 정보처리 및 지식을 축적하여 내적 및 외적인 변화에서 오는 태도를 토대로 제품에 대한 선택을 결정 할 수 있다.<sup>12</sup> 선택속성은 제품 및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본인이 결정한 핵심적인 속성의 결과에 따라서 제품 이용 후 지각하는 만족도를 결정적 속성 혹은 선택속성이라 말할 수 있다.<sup>28</sup> 따라서 선택속성은 단순한 판매 자료 이외의 마케팅자료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신승준(2006)의 연구<sup>27</sup>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속성을 브랜드 및 제조사, 가격, 효능 및 효과, 본인의 체질 유무, 포장 및 디자인, 특허 혹은 인증, TV 광고 및 방송, 구입 장소, 합성 성분이나 천연성분 차이, 맛, 섭취의 간편성, 보관의 편리성, 구매의 용이성, 수입제품의 여부, 서비스(상담포함) 선택 등 총 15가지로 분류하였다. 설상철 외 2명 (2014)의 연구<sup>28</sup>에서는 선택속성을 내재적 속성과 외

재적 속성으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속성에는 과학적 자료, 본인의 체질에 적합한지, 실제 효능 여부, 제품에 함유된 성분 등을 분류하였고, 외재적 속성에는 포장디자인, 제품의 광고 여부, 브랜드, 제품의 향기, 제조회사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설상철 외 2명(2014)의 연구<sup>28</sup>에서는 소비자 유형별로 모두 외재적 속성보다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숙, 김숙웅(2015)의 연구<sup>12</sup>에서는 실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형태, 광고 여부 등의 따라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은, 김성은(2020)의 연구<sup>15</sup>에서는 내재적 속성에 대한 점수가 외재적 속성에 대한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내재적 속성 중 제품의 효능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항목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외재적 속성 중에서는 포장상태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을 선택한다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포장의 디자인적인 측면(색감,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에 거주 중인 20대~70세 미만 성인 346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7일 까지 직접기입법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60대 이상 연령은 선행연구<sup>12</sup>와 같이 임의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4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 미섭취군과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연구 참여 동의 여부에 미동의를 한 설문지 45부를 제외한 총 30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생명윤리심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수행하였다(JJNU-IRB-2022-020).

####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sup>6, 7, 12, 15, 16, 17, 27</sup>와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 조사지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일반사항, 건강관련 사항, 건강기능식품 이용실태, 소비가치, 선택속성으로 구성하였다.

#####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결혼여부, 거주형태, 가구형태, 월 소득, 한 달 용돈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 2) 건강관련사항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음주빈도, 흡연여부, 수면시간, 스트레스정도, 건강관심정도, 자신의 건강상태 정도 총 6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 3)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는 건강기능식품 관심정도, 건강기능식품 인지여부, 건강기능식품 교육 또는 홍보경험 여부, 건강기능식품 섭취 여부, 건강기능식품 섭취 빈도, 구매가격, 섭취 동기, 구매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여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를 조사하였다.

## 4) 소비가치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기능적가치(3문항), 상황적가치(3문항), 사회적가치(3문항), 감정적가치(3문항), 인지적가치(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5) 선택속성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은 맛, 향, 제품성분, 실제효능 여부, 제품의 과학적 자료, 섭취와 휴대의 간편성, 제품의 브랜드, 광고 여부의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전혀 중요치 않다(1점), 중요치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중요하다(4점), 매우 중요하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Program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건강관련 사항,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소비가치, 선택속성 부분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건강관련 사항,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소비가치는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 1이상을 기준으로 요인회전 방법은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후 소비가치에 따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묶어주기 위해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독립 표본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1과 같으며, 성별은 여자 59.8%, 남자 40.2%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22.3%, 30대 20.1%, 40대 19.8%, 50대 21.7%, 60대 16.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3.0%,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재학 포함) 24.3%,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64.5%, 대학원 수료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 8.3%로 나타났고, 현재 거주형태는 자택 90.4%, 자취 7.6%, 기숙사/사택 2.0%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는 1인이 10.6%, 2인 23.3%, 3인 23.9%, 4인 이상 가족 42.2%로 나타났고, 직업은 전문직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19.9%, 자영업 13.6%, 서비스직 10.3%, 학생과 단순노무가 각각 10.0%, 판매직 3.0%, 기타 2.3%, 교육직 1.3%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 7.6%, 100-200만원 미만 13.6%, 200-300만원 미만 40.9%, 300-400만원 미만 5.3%, 500만원 이상 9.6%로 나타났고, 한 달 용돈은 20만원 미만 11.8%, 20-30만원 미만 9.2%, 30-40만원 미만 17.2%, 40-50만원 미만 8.8%, 50만원 이상 53.1%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구분	빈도(명)	%
성별 (n=301)	남자		121	40.2
	여자		180	59.8
연령 (n=301)	20대		80	22.3
	30대		72	20.1
	40대		71	19.8
	50대		78	21.7
	60대		58	16.2
최종학력 (n=301)	중졸 이하		9	3.0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재학 포함)		73	24.3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194	64.5
	대학원 수료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		25	8.3
현재 거주형태 (n=301)	자택		272	90.4
	자취		23	7.6
	기숙사/사택		6	2.0
가구 형태 (n=301)	1인		32	10.6
	2인		70	23.3
	3인		72	23.9
	4인 이상 가족		127	42.2
직업 (n=301)	학생		30	10.0
	사무직		60	19.9
	전문직		89	29.6
	교육직		4	1.3
	서비스직		31	10.3
	판매직		9	3.0
	자영업		41	13.6
	단순노무		30	10.0
	기타		7	2.3
월 소득 (n=301)	100만원 미만		23	7.6
	100-200만원 미만		41	13.6
	200-300만원 미만		123	40.9
	300-400만원 미만		69	22.9
	400-500만원 미만		16	5.3
500만원 이상		29	9.6	
한 달 용돈 (n=262)	20만원 미만		31	11.8
	20-30만원 미만		24	9.2
	30-40만원 미만		45	17.2
	40-50만원 미만		23	8.8
	50만원 이상		139	53.1
		총 계	301	100.0

## 2.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

건강관련 사항은 표 2와 같으며, 음주 빈도는 술을 마셔 본 적이 없는 대상이 8.6%, 한 달에 1번 정도 21.6%, 한 달에 2-4번 30.6%, 일주일에 2-3번 정도 21.9%, 일주일에 4번 이상 3.7%,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 대상이 13.6%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는 피우지 않는 대상이 79.1%, 가끔 피우는 대상 6.6%,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 대상이 8.3%, 하루에 반 갑 이상이 6.0%로 나타났다.

하루 취침 시간은 5시간 미만이 5.3%, 5-7시간 미만이 68.1%, 7시간 이상이 26.6%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거의 느끼지 않는 대상이 10.0%, 조금 느끼는 편 56.8%, 많이 느끼는 편 29.2%,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 4.0%로 나타났다.

건강 관심 정도는 '보통이다'가 51.5%로 가장 많았고, '높다' 32.6%, '매우 높다' 9.0%, '낮다' 6.6%, '매우 낮다' 0.3% 순이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는 '보통이다'가 58.1%로 가장 많았고, '좋다' 20.9%, '나쁘다' 17.6%, '매우 나쁘다'와 '매우 좋다'가 각각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

	구분	빈도(명)	%
음주 빈도	술을 마셔 본 적 없다	26	8.6
	한 달에 1번 정도	65	21.6
	한달에 2-4번	92	30.6
	일주일에 2-3번 정도	66	21.9
	일주일에 4번 이상	11	3.7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다	41	13.6
	흡연 여부	피우지 않는다	238
가끔 피운다		20	6.6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다		25	8.3
하루에 반 갑 이상이다		18	6.0
하루 취침 시간	5시간 미만	16	5.3
	5-7시간 미만	205	68.1
	7시간 이상	80	26.6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30	10.0
	조금 느끼는 편이다	171	56.8
	많이 느끼는 편이다	88	29.2
	대단히 많이 느낀다	12	4.0
건강 관심 정도	매우 낮다	1	0.3
	낮다	20	6.6
	보통이다	155	51.5
	높다	98	32.6
	매우 높다	27	9.0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	매우 나쁘다	5	1.7
	나쁘다	53	17.6
	보통이다	175	58.1
	좋다	63	20.9
	매우 좋다	5	1.7
	총 계	301	100.0

### 3.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 1)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소비가치와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하였고, 소비가치에 대한 신뢰도는 사회적 0.938, 인지적 0.905, 감정적 0.788, 기능적 0.716, 상황적 0.664로 나타나 적합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가치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 하기 위해 분석기법은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였고, 고유값 1.0 이상 되는 요인의 개수를 파악하고, 요인적재량 0.50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비가치 15개 문항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5개의 요인은 각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의 값이 클수록 전체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5개의 요인에 대한 누적설명력은 76.11%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서 요인 1 사회적(3항목), 요인 2 인지적(3항목), 요인 3 감정적(3항목), 요인 4 기능적(3항목), 요인 5 상황적(3항목)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요인1은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속해있는 집단과 어울리는지 생각한다', '선택한 건강기능식품이 나의 품위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강기능 식품을 선택 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의 항목이 포함되어 '사회적 소비가치'라고 명명하였으며, 31.22%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2는 '디자인, 포장이 독특한 건강기능식품은 사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이 중요하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하여야 한다'의 항목이 포함되어 '인지적 소비가치'라고 명명하였으며, 14.78%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3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만족감을 느낀다', '내가 원하는 건강식품 복용의 즐거움은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은 중요하다'의 항목이 포함되어 '감정적 소비가치'라고 명명하였으며, 12.48%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4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은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가격 대비 가치가 중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실용적이다'의

항목이 포함되어 ‘기능적 소비가치’라고 명명하였으며, 10.67%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5는 ‘주변사람들이나 자신이 아플 때 건강기능식품의 관심이 많아진다’, ‘세일이나 쿠폰 등 특별행사 시에 관심이 많아진다’, ‘건강기능식품이 선물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의 항목이 포함되어 ‘상황적 소비가치’라고 명명하였으며, 6.95%의 설명력을 가진다.

표 3.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요인분석

(n=301)

구분	요인 적재량	아이겐값	%분산	%누적	Cronbach's $\alpha$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속해있는 집단과 어울리는지 생각한다.	.906				
사회적	선택한 건강기능식품이 나의 품위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01	4.683	31.219	31.219	0.938
	건강기능 식품을 선택 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	.863				
	디자인, 포장이 독특한 건강기능식품은 사야한다고 생각한다.	.900				
인지적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 선택이 중요하다.	.819	2.217	14.783	46.002	0.905
	호기심을 유발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하여야 한다.	.759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만족감을 느낀다.	.829				
감정적	내가 원하는 건강식품 복용의 즐거움은 중요하다.	.747	1.872	12.482	58.484	0.788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은 중요하다.	.726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은 중요하다.	.822				
기능적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가격 대비 가치가 중요하다.	.791	1.601	10.672	69.156	0.716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실용적이다.	.617				
	주변사람들이나 자신이 아플 때 건강기능식품의 관심이 많아진다.	.850				
상황적	세일이나 쿠폰 등 특별행사 시에 관심이 많아진다.	.744	1.043	6.951	76.107	0.664
	건강기능식품이 선물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541				

## 2)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의 군집분석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각 요인 점수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이용해 군집을 추출하였으며, 각각 199명, 102명으로 그 결과 표 4와 같다.

본 연구결과 소비가치에 따라 2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의 경우 상황적,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소비가치가 높게 나타나 고관심가치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2의 경우 군집1 보다 상황적,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소비가치가 낮게 나타나 저관심가치집단 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 소비가치 군집분석**

측정문항	Mean±SD		
	고관심가치집단 (n=199)	저관심가치집단 (n=102)	t-value
기능적	4.09±0.57	4.13±0.53	-.549
상황적	3.91±0.59	3.70±0.71	2.723**
사회적	3.31±0.57	1.81±0.56	21.687***
감정적	3.82±0.55	3.41±0.68	5.315***
인지적	3.33±0.58	1.93±0.58	19.782***

\*\*p<.01, \*\*\*p<.001



### 3)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일반사항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일반사항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고관심가치집단은 남자의 비율(46.7%)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1$ ) 연령에 있어서는 50대(29.1%)와 60대(25.1%)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1$ )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재학 포함)의 비율이 27.1%로 높게 나타났고( $p < .05$ ), 자택(95.0%), 2인 가구(26.6%), 서비스직(12.6%)과 자영업(15.6%), 월 소득 200-300만원 미만의 비율(42.7%)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5$ ).

저관심가치집단은 여자의 비율이 72.5%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01$ ), 연령은 20대(36.3%), 30대(24.5%), 40대(26.5%)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 ), 대학원 수료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의 비율이 13.7%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p < .05$ ), 자취(15.7%), 4인 이상 가족(52.0%), 학생(21.6%),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14.7%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소비가치

N(%)

구분		소비가치		$\chi^2$
		고관심가치 집단 (n=199)	저관심가치 집단 (n=102)	
성별 (n=301)	남자	93(46.7)	28(27.5)	10.430***
	여자	106(53.3)	74(72.5)	
연령 (n=301)	20대	25(12.6)	37(36.3)	55.548***
	30대	37(18.6)	25(24.5)	
	40대	29(14.6)	27(26.5)	
	50대	58(29.1)	11(10.8)	
최종학력 (n=301)	중졸 이하	8(4.0)	1(1.0)	9.671*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재학 포함)	54(27.1)	19(18.6)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126(63.3)	68(66.7)	
	대학원 수료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	11(5.5)	14(13.7)	
현재 거주형태 (n=301)	자택	189(95.0)	83(81.4)	15.144***
	자취	7(3.5)	16(15.7)	
	기숙사/사택	3(1.5)	3(2.9)	
가구 형태 (n=301)	1인	18(9.0)	14(13.7)	10.297*
	2인	53(26.6)	17(16.7)	
	3인	54(27.1)	18(17.6)	
	4인 이상 가족	74(37.2)	53(52.0)	
직업 (n=301)	학생	8(4.0)	22(21.6)	46.801***
	사무직	37(18.6)	23(22.5)	
	전문직	59(29.6)	30(29.4)	
	교육직	2(1.0)	2(2.0)	
	서비스직	25(12.6)	6(5.9)	
	판매직	8(4.0)	1(1.0)	
	자영업	31(15.6)	10(9.8)	
	단순노무	28(14.1)	2(2.0)	
월 소득 (n=301)	100만원 미만	8(4.0)	15(14.7)	11.660*
	100-200만원 미만	30(15.1)	11(10.8)	
	200-300만원 미만	85(42.7)	38(37.3)	
	300-400만원 미만	45(22.6)	24(23.5)	
	400-500만원 미만	11(5.5)	5(4.9)	
한 달 용돈 (n=262)	500만원 이상	20(10.1)	9(8.8)	6.833
	20만원 미만	16(9.1)	15(17.4)	
	20-30만원 미만	18(10.2)	6(7.0)	
	30-40만원 미만	27(15.3)	18(20.9)	
	40-50만원 미만	18(10.2)	5(5.8)	
	50만원 이상	97(55.1)	42(48.8)	

\*p<.05, \*\*\*p<.001

#### 4. 건강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 1)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는 표 6과 같으며, 건강기능식품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60.5%로 가장 많았고, ‘아주 많다’ 19.6%, ‘그저 그렇다’ 17.3%, ‘관심 없다’ 2.7%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는 ‘보통이다’ 49.2%로 가장 많았고, ‘조금 알고 있다’ 29.2%, ‘잘 모른다’ 12.3%, ‘잘 알고 있다’ 9.3%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 경험은 경험이 없는 대상이 82.4%로 경험이 있는 17.6%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취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53.8%, 지인의 권유 27.6%,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권유 3.7%, 방문판매원의 권유 0.3%, 각종 매체 13.6%, 기타 1.0%으로 나타났다.

구매자는 직접 구입이 76.7%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0.3%, 배우자 이외의 가족 9.0%, 친구 또는 지인 4.0%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기능식품 주 구입처는 홈쇼핑 또는 인터넷이 68.4%로 가장 많았고, 전문판매점 15.0%, 약국 9.6%, 방문판매 3.7%, 대형마트와 드럭스토어가 각각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 판매의 성장으로 구매 경로가 다양하고 간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가장 중요 이유는 건강 유지가 50.5%로 가장 많았고, 영양 보충 26.9%, 질병 예방 및 치료 17.8% 미용효과 4.5%,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는 확인하는 대상이 58.8%로 확인하지 않는 대상 41.2%에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는 ‘효과가 있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 35.9%, ‘효과 없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및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sup>6</sup>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유지 (50%), 영양 보충 (30.9%)이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고,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유지와 영양보충을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구분		빈도(명)	%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N=301)	아주 많다	59	19.6
	보통이다	182	60.5
	그저 그렇다	52	17.3
	관심 없다	8	2.7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 (N=301)	잘 알고 있다	28	9.3
	보통이다	148	49.2
	조금 알고 있다	88	29.2
	잘 모른다	37	12.3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 경험 (N=301)	있다	53	17.6
	없다	248	82.4
섭취에 가장 중요한 동기 (N=301)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162	53.8
	지인의 권유	83	27.6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권유	11	3.7
	방문판매원의 권유	1	0.3
	각종 매체	41	13.6
	기타	3	1.0
구매자 (N=301)	직접 구입	231	76.7
	배우자	31	10.3
	배우자 이외의 가족	27	9.0
	친구 또는 지인	12	4.0
건강기능식품 주 구입처 (N=301)	대형마트	5	1.7
	전문판매점	45	15.0
	홈쇼핑 또는 인터넷	206	68.4
	방문판매	11	3.7
	약국	29	9.6
	드럭스토어	5	1.7
건강기능식품 섭취 가장 주요 이유 (N=465)	건강 유지	235	50.5
	영양 보충	125	26.9
	질병 예방 및 치료	83	17.8
	미용효과	21	4.5
	기타	1	0.2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N=301)	확인한다	177	58.8
	확인하지 않는다	124	41.2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N=301)	효과 있다	190	63.1
	효과 없다	3	1.0
	잘 모르겠다	108	35.9
총 계		301	100.0

## 2)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는 표 7과 같으며, 매일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종류는 ‘비타민보충제(50.5%)’, ‘프로바이오틱스(36.9%)’, ‘오메가-3(28.9%)’, ‘홍삼(23.9%)’, ‘루테인(16.3%)’ 순으로 높았으며, 주 1회 섭취는 ‘비타민보충제(13.3%)’, ‘홍삼(12.0%)’, ‘프로바이오틱스(8.6%)’, ‘오메가-3(7.3%)’, ‘루테인(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보충제의 경우 주 1회 이상(50.5%), 월 2-3회(13.3%) 섭취하는 비율이 모든 건강기능식품 종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및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sup>15</sup>에서도 비타민보충제(25.25%) 섭취 빈도가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7.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N(%)	
구분		빈도(명)	%
비타민보충제	매일 섭취	152	50.5
	주 1회 섭취	40	13.3
	월 1회 섭취	16	5.3
	분기 1회 섭취	10	3.3
	섭취하지 않음	83	27.6
홍삼	매일 섭취	72	23.9
	주 1회 섭취	36	12.0
	월 1회 섭취	17	5.6
	분기 1회 섭취	32	10.6
	섭취하지 않음	144	47.8
오메가-3	매일 섭취	87	28.9
	주 1회 섭취	22	7.3
	월 1회 섭취	6	2.0
	분기 1회 섭취	15	5.0
	섭취하지 않음	171	56.8
프로바이오틱스	매일 섭취	111	36.9
	주 1회 섭취	26	8.6
	월 1회 섭취	6	2.0
	분기 1회 섭취	12	4.0
	섭취하지 않음	146	48.5
루테인	매일 섭취	49	16.3
	주 1회 섭취	14	4.7
	월 1회 섭취	12	4.0
	분기 1회 섭취	19	6.3
	섭취하지 않음	207	68.8
무기질보충제	매일 섭취	45	15.0
	주 1회 섭취	15	5.0
	월 1회 섭취	8	2.7
	분기 1회 섭취	12	4.0
	섭취하지 않음	221	73.4

표 7.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계속)

N(%)

구분	빈도(명)	%	
밀크씨슬	매일 섭취	26	8.6
	주 1회 섭취	10	3.3
	월 1회 섭취	6	2.0
	분기 1회 섭취	16	5.3
	섭취하지 않음	243	80.7
식이섬유보충제	매일 섭취	12	4.0
	주 1회 섭취	12	4.0
	월 1회 섭취	7	2.3
	분기 1회 섭취	14	4.7
	섭취하지 않음	256	85.0
프로폴리스추출물	매일 섭취	11	3.7
	주 1회 섭취	8	2.7
	월 1회 섭취	3	1.0
	분기 1회 섭취	21	7.0
	섭취하지 않음	258	85.7
인삼	매일 섭취	1	0.3
	주 1회 섭취	7	2.3
	월 1회 섭취	6	2.0
	분기 1회 섭취	27	9.0
	섭취하지 않음	260	86.4
글루코사민	매일 섭취	7	2.3
	주 1회 섭취	7	2.3
	월 1회 섭취	2	0.7
	분기 1회 섭취	18	6.0
	섭취하지 않음	267	88.7
알로에 겔	매일 섭취	6	2.0
	주 1회 섭취	6	2.0
	월 1회 섭취	3	1.0
	분기 1회 섭취	19	6.3
	섭취하지 않음	267	88.7
히알루론산	매일 섭취	5	1.7
	주 1회 섭취	5	1.7
	월 1회 섭취	3	1.0
	분기 1회 섭취	19	6.3
	섭취하지 않음	269	89.4
프락토올리고당	매일 섭취	5	1.7
	주 1회 섭취	9	3.0
	월 1회 섭취	3	1.0
	분기 1회 섭취	14	4.7
	섭취하지 않음	270	89.7
클로렐라	매일 섭취	3	1.0
	주 1회 섭취	4	1.3
	월 1회 섭취	3	1.0
	분기 1회 섭취	18	6.0
	섭취하지 않음	273	90.7
기타	매일 섭취	19	6.3
	주 1회 섭취	7	2.3
	월 1회 섭취	2	0.7
	분기 1회 섭취	16	5.3
	섭취하지 않음	257	85.4

### 3)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은 표 8과 같으며, 5만원 미만 구매 하는 비율은 ‘비타민보충제(44.2%)’, ‘프로바이오틱스(31.2%)’, ‘오메가-3(24.9%)’, ‘루테인(20.6%)’, ‘홍삼(10.6%)’ 순으로 높았으며, 5-10 미만 구매하는 비율은 ‘홍삼(22.3%)’, ‘비타민보충제(20.3%)’, ‘프로바이오틱스(14.3%)’, ‘오메가-3(13.3%)’, ‘루테인(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N(%)	
	구분	빈도(명)	%
비타민보충제	5만원 미만	133	44.2
	5-10만원 미만	61	20.3
	10-20만원 미만	12	4.0
	20만원 이상	3	1.0
	구매하지 않음	92	30.6
홍삼	5만원 미만	32	10.6
	5-10만원 미만	67	22.3
	10-20만원 미만	31	10.3
	20만원 이상	19	6.3
	구매하지 않음	152	50.5
오메가-3	5만원 미만	75	24.9
	5-10만원 미만	40	13.3
	10-20만원 미만	14	4.7
	20만원 이상	3	1.0
	구매하지 않음	169	56.1
프로바이오틱스	5만원 미만	94	31.2
	5-10만원 미만	43	14.3
	10-20만원 미만	10	3.3
	20만원 이상	5	1.7
	구매하지 않음	149	49.5
루테인	5만원 미만	62	20.6
	5-10만원 미만	23	7.6
	10-20만원 미만	7	2.3
	20만원 이상	2	0.7
	구매하지 않음	207	68.8
무기질보충제	5만원 미만	56	18.6
	5-10만원 미만	15	5.0
	10-20만원 미만	6	2.0
	20만원 이상	2	0.7
	구매하지 않음	222	73.8
밀크씨슬	5만원 미만	33	11.0
	5-10만원 미만	17	5.6
	10-20만원 미만	5	1.7
	20만원 이상	1	0.3
	구매하지 않음	245	81.4

표 8.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계속)

N(%)

구분	빈도(명)	%	
식이섬유보충제	5만원 미만	26	8.6
	5-10만원 미만	12	4.0
	10-20만원 미만	2	0.7
	20만원 이상	3	1.0
	구매하지 않음	258	85.7
프로폴리스추출물	5만원 미만	24	8.0
	5-10만원 미만	12	4.0
	10-20만원 미만	5	1.7
	20만원 이상	2	0.7
	구매하지 않음	258	85.7
인삼	5만원 미만	15	5.0
	5-10만원 미만	15	5.0
	10-20만원 미만	9	3.0
	20만원 이상	3	1.0
	구매하지 않음	259	86.0
글루코사민	5만원 미만	17	5.6
	5-10만원 미만	14	4.7
	10-20만원 미만	1	0.3
	20만원 이상	1	0.3
	구매하지 않음	268	89.0
알로에 겔	5만원 미만	15	5.0
	5-10만원 미만	13	4.3
	10-20만원 미만	4	1.3
	20만원 이상	2	0.7
	구매하지 않음	267	88.7
히알루론산	5만원 미만	16	5.3
	5-10만원 미만	12	4.0
	10-20만원 미만	1	0.3
	20만원 이상	2	0.7
	구매하지 않음	270	89.7
프락토올리고당	5만원 미만	19	6.3
	5-10만원 미만	10	3.3
	10-20만원 미만	2	0.7
	20만원 이상	1	0.3
	구매하지 않음	269	89.4
클로렐라	5만원 미만	13	4.3
	5-10만원 미만	11	3.7
	10-20만원 미만	1	0.3
	20만원 이상	2	0.7
	구매하지 않음	274	91.0
기타	5만원 미만	25	8.3
	5-10만원 미만	14	4.7
	10-20만원 미만	2	0.7
	20만원 이상	1	0.3
	구매하지 않음	259	86.0



#### 4)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 (1)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녀 모두 '보통이다'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아주 많다'에서 여자(24.4%)가 남자(12.4%)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직업에 있어서는 '아주 많다'에서 교육직(50.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에서 학생(33.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조사대상의 연령, 최종학력, 현재 거주형태, 가구 형태, 월 소득 및 한 달 용돈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N(%)

	구분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chi^2$
		아주 많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 없다	
성별 (n=301)	남자	15(12.4)	90(74.4)	14(11.6)	2(1.7)	16.419***
	여자	44(24.4)	92(51.1)	38(21.1)	6(3.3)	
연령 (n=301)	20대	15(24.2)	30(48.4)	15(24.2)	2(3.2)	11.981
	30대	10(16.1)	41(66.1)	10(16.1)	1(1.6)	
	40대	13(23.2)	34(60.7)	8(14.3)	1(1.8)	
	50대	14(20.3)	40(58.0)	11(15.9)	4(5.8)	
	60대	7(13.5)	37(71.2)	8(15.4)	0(0.0)	
최종학력 (n=301)	중졸 이하	0(0.0)	8(88.9)	1(11.1)	0(0.0)	14.578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포함)	10(13.7)	43(58.9)	17(23.3)	3(4.1)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39(20.1)	119(61.3)	32(16.5)	4(2.1)	
	대학원 수료 이상 (대학원 졸업 포함)	10(40.0)	12(48.0)	2(8.0)	1(4.0)	
현재 거주형태 (n=301)	자택	52(19.1)	164(60.3)	49(18.0)	7(2.6)	2.907
	자취	6(26.1)	13(56.5)	3(13.0)	1(4.3)	
	기숙사/사택	1(16.7)	5(83.3)	0(0.0)	0(0.0)	
가구 형태 (n=301)	1인	5(15.6)	22(68.8)	3(9.4)	2(6.3)	7.048
	2인	15(21.4)	42(60.0)	12(17.1)	1(1.4)	
	3인	15(20.8)	46(63.9)	9(12.5)	2(2.8)	
	4인 이상 가족	24(18.9)	72(56.7)	28(22.0)	3(2.4)	
직업 (n=301)	학생	5(16.7)	14(46.7)	10(33.3)	1(3.3)	36.909*
	사무직	13(21.7)	37(61.7)	9(15.0)	1(1.7)	
	전문직	20(22.5)	52(58.4)	16(18.0)	1(1.1)	
	교육직	2(50.0)	1(25.0)	0(0.0)	1(25.0)	
	서비스직	4(12.9)	23(74.2)	4(12.9)	0(0.0)	
	판매직	4(44.4)	4(44.4)	1(11.1)	0(0.0)	
	자영업	5(12.2)	29(70.7)	6(14.6)	1(2.4)	
	단순노무	3(10.0)	19(63.3)	5(16.7)	3(10.0)	
기타	3(42.9)	3(42.9)	1(14.3)	0(0.0)		
월 소득 (n=301)	100만원 미만	4(17.4)	12(52.2)	6(26.1)	1(4.3)	11.492
	100-200만원 미만	7(17.1)	25(61.0)	8(19.5)	1(2.4)	
	200-300만원 미만	27(22.0)	71(57.7)	23(18.7)	2(1.6)	
	300-400만원 미만	15(21.7)	42(60.9)	10(14.5)	2(2.9)	
	400-500만원 미만	2(12.5)	14(87.5)	0(0.0)	0(0.0)	
500만원 이상	4(13.8)	18(62.1)	5(17.2)	2(6.9)		
한 달 용돈 (n=262)	20만원 미만	9(29.0)	18(58.1)	3(9.7)	1(3.2)	18.689
	20-30만원 미만	8(33.3)	9(37.5)	7(29.2)	0(0.0)	
	30-40만원 미만	6(13.3)	27(60.0)	12(26.7)	0(0.0)	
	40-50만원 미만	3(13.0)	17(73.9)	2(8.7)	1(4.3)	
	50만원 이상	22(15.8)	92(66.2)	21(15.1)	4(2.9)	

\*p<.05, \*\*\*p<.001

## (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구매자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에 따른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녀 모두 '직접 구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19.8%)의 경우 배우자에서 여자(3.9%)의 비율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연령은 직접 구입에서 30대(85.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에서 50대(15.9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직업은 직접 구입에서 사무직(86.7%)과 단순노무(86.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에서 판매직(22.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월 소득은 직접 구입에서 200-300만원 미만(83.7%)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에서 500만원 이상(24.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한 달 용돈은 직접 구입에서 40-50만원 미만(87.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에서 20-30만원 미만(25.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조사대상의 최종학력, 현재 거주형태, 가구 형태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구매자

N(%)

	구분	구매자				$\chi^2$
		직접 구입	배우자	배우자 이외의 가족	친구 또는 지인	
성별 (n=301)	남자	87(71.9)	24(19.8)	7(5.8)	3(2.5)	21.924***
	여자	144(80.0)	7(3.9)	20(11.1)	9(5.0)	
연령 (n=301)	20대	41(66.1)	3(4.8)	14(22.6)	4(6.5)	28.166**
	30대	53(85.5)	5(8.1)	1(1.6)	3(4.8)	
	40대	46(82.1)	7(12.5)	2(3.6)	1(1.8)	
	50대	51(73.9)	11(15.9)	4(5.8)	3(4.3)	
	60대	40(76.9)	5(9.6)	6(11.5)	1(1.9)	
최종학력 (n=301)	중졸 이하	5(55.6)	1(11.1)	2(22.2)	1(11.1)	13.669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포함)	52(71.2)	9(12.3)	11(15.1)	1(1.4)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152(78.4)	20(10.3)	14(7.2)	8(4.1)	
	대학원 수료 이상 (대학원 졸업 포함)	22(88.0)	1(4.0)	0(0.0)	2(8.0)	
현재 거주형태 (n=301)	자택	209(76.8)	30(11.0)	24(8.8)	9(3.3)	7.298
	자취	17(73.9)	1(4.3)	2(8.7)	3(13.0)	
	기숙사/사택	5(83.3)	0(0.0)	1(16.7)	0(0.0)	
가구 형태 (n=301)	1인	26(81.3)	0(0.0)	3(9.4)	3(9.4)	13.766
	2인	53(75.7)	6(8.6)	6(8.6)	5(7.1)	
	3인	59(81.9)	9(12.5)	4(5.6)	0(0.0)	
	4인 이상 가족	93(73.2)	16(12.6)	14(11.0)	4(3.1)	
직업 (n=301)	학생	16(53.3)	1(3.3)	10(33.3)	3(10.0)	51.527***
	사무직	52(86.7)	6(10.0)	1(1.7)	1(1.7)	
	전문직	74(83.1)	8(9.0)	4(4.5)	3(3.4)	
	교육직	3(75.0)	0(0.0)	0(0.0)	1(25.0)	
	서비스직	18(58.1)	6(19.4)	5(16.1)	2(6.5)	
	판매직	6(66.7)	2(22.2)	1(11.1)	0(0.0)	
	자영업	30(73.2)	6(14.6)	3(7.3)	2(4.9)	
	단순노무	26(86.7)	2(6.7)	2(6.7)	0(0.0)	
	기타	6(85.7)	0(0.0)	1(14.3)	0(0.0)	
월 소득 (n=301)	100만원 미만	14(60.9)	0(0.0)	6(26.1)	3(13.0)	35.970**
	100-200만원 미만	28(68.3)	5(12.2)	6(14.6)	2(4.9)	
	200-300만원 미만	103(83.7)	7(5.7)	10(8.1)	3(2.4)	
	300-400만원 미만	56(81.2)	10(14.5)	2(2.9)	1(1.4)	
	400-500만원 미만	13(81.3)	2(12.5)	0(0.0)	1(6.3)	
	500만원 이상	17(58.6)	7(24.1)	3(10.3)	2(6.9)	
한 달 용돈 (n=262)	20만원 미만	24(77.4)	1(3.2)	6(19.4)	0(0.0)	23.917*
	20-30만원 미만	14(58.3)	6(25.0)	3(12.5)	1(4.2)	
	30-40만원 미만	33(73.3)	4(8.9)	7(15.6)	1(2.2)	
	40-50만원 미만	20(87.0)	2(8.7)	0(0.0)	1(4.3)	
	50만원 이상	111(79.9)	16(11.5)	5(3.6)	7(5.0)	

\*p<.05, \*\*p<.01, \*\*\*p<.001

### (3)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확인한다'에서 여자(67.2%)가 남자(46.3%)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연령은 '확인한다'에서 50대(72.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확인하지 않는다'에서 20대(54.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조사대상의 최종학력, 현재 거주형태, 직업, 가구 형태, 월 소득, 한 달 용돈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1.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N(%)

구분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chi^2$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성별 (n=301)	남자	56(46.3)	65(53.7)	13.099***
	여자	121(67.2)	59(32.8)	
연령 (n=301)	20대	28(45.2)	34(54.8)	15.309**
	30대	32(51.6)	30(48.4)	
	40대	30(53.6)	26(46.4)	
	50대	50(72.5)	19(27.5)	
최종학력 (n=301)	60대	37(71.2)	15(28.8)	4.461
	중졸 이하	7(77.8)	2(22.2)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재학 포함)	48(65.8)	25(34.2)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106(54.6)	88(45.4)	
현재 거주형태 (n=301)	대학원 수료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	16(64.0)	9(36.0)	0.207
	자택	159(58.5)	113(41.5)	
	자취	14(60.9)	9(39.1)	
가구 형태 (n=301)	기숙사/사택	4(66.7)	2(33.3)	2.654
	1인	22(68.8)	10(31.3)	
	2인	44(62.9)	26(37.1)	
	3인	39(54.2)	33(45.8)	
직업 (n=301)	4인 이상 가족	72(56.7)	55(43.3)	8.342
	학생	12(40.0)	18(60.0)	
	사무직	32(53.3)	28(46.7)	
	전문직	56(62.9)	33(37.1)	
	교육직	2(50.0)	2(50.0)	
	서비스직	20(64.5)	11(35.5)	
	판매직	5(55.6)	4(44.4)	
	자영업	24(58.5)	17(41.5)	
월 소득 (n=301)	단순노무	21(70.0)	9(30.0)	4.760
	기타	5(71.4)	2(28.6)	
	100만원 미만	11(47.8)	12(52.2)	
	100-200만원 미만	29(70.7)	12(29.3)	
	200-300만원 미만	70(56.9)	53(43.1)	
	300-400만원 미만	38(55.1)	31(44.9)	
한 달 용돈 (n=262)	400-500만원 미만	10(62.5)	6(37.5)	4.774
	500만원 이상	19(65.5)	10(34.5)	
	20만원 미만	15(48.4)	16(51.6)	
	20-30만원 미만	17(70.8)	7(29.2)	
	30-40만원 미만	28(62.2)	17(37.8)	
40-50만원 미만	16(69.6)	7(30.4)		
50만원 이상	77(55.4)	62(44.6)		

\*\*p<.01, \*\*\*p<.001

#### (4)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연령에서는 '효과 있다'에서 60대(92.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에서 40대(51.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가구 형태에서는 '효과 있다'에서 3인(73.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에서 1인(46.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조사대상의 성별, 최종학력, 현재 거주형태, 직업, 월 소득, 한 달 용돈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N(%)

구분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chi^2$	
	효과 있다	효과 없다	잘 모르겠다		
성별 (n=301)	남자	80(66.1)	1(0.8)	40(33.1)	0.795
	여자	110(61.1)	2(1.1)	68(37.8)	
연령 (n=301)	20대	30(48.4)	1(1.6)	31(50.0)	39.623***
	30대	37(59.7)	0(0.0)	25(40.3)	
	40대	25(44.6)	2(3.6)	29(51.8)	
	50대	50(72.5)	0(0.0)	19(27.5)	
	60대	48(92.3)	0(0.0)	4(7.7)	
최종학력 (n=301)	중졸 이하	8(88.9)	0(0.0)	1(11.1)	6.781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포함)	50(68.5)	1(1.4)	22(30.1)	
	대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120(61.9)	2(1.0)	72(37.1)	
	대학원 수료 이상 (대학원 졸업 포함)	12(48.0)	0(0.0)	13(52.0)	
현재 거주형태 (n=301)	자택	176(64.7)	3(1.1)	93(34.2)	3.696
	자취	11(47.8)	0(0.0)	12(52.2)	
	기숙사/사택	3(50.0)	0(0.0)	3(50.0)	
가구 형태 (n=301)	1인	17(53.1)	0(0.0)	15(46.9)	13.251*
	2인	51(72.9)	1(1.4)	18(25.7)	
	3인	53(73.6)	0(0.0)	19(26.4)	
	4인 이상 가족	69(54.3)	2(1.6)	56(44.1)	
직업 (n=301)	학생	13(43.3)	0(0.0)	17(56.7)	22.287
	사무직	29(48.3)	1(1.7)	30(50.0)	
	전문직	59(66.3)	0(0.0)	30(33.7)	
	교육직	2(50.0)	0(0.0)	2(50.0)	
	서비스직	23(74.2)	1(3.2)	7(22.6)	
	판매직	7(77.8)	0(0.0)	2(22.2)	
	자영업	30(73.2)	1(2.4)	10(24.4)	
	단순노무	22(73.3)	0(0.0)	8(26.7)	
	기타	5(71.4)	0(0.0)	2(28.6)	
월 소득 (n=301)	100만원 미만	12(52.2)	0(0.0)	11(47.8)	6.437
	100-200만원 미만	27(65.9)	0(0.0)	14(34.1)	
	200-300만원 미만	84(68.3)	1(0.8)	38(30.9)	
	300-400만원 미만	41(59.4)	1(1.4)	27(39.1)	
	400-500만원 미만	10(62.5)	0(0.0)	6(37.5)	
500만원 이상	16(55.2)	1(3.4)	12(41.4)		
한 달 용돈 (n=262)	20만원 미만	17(54.8)	0(0.0)	14(45.2)	6.394
	20-30만원 미만	19(79.2)	0(0.0)	5(20.8)	
	30-40만원 미만	27(60.0)	1(2.2)	17(37.8)	
	40-50만원 미만	12(52.2)	0(0.0)	11(47.8)	
	50만원 이상	88(63.3)	2(1.4)	49(35.3)	

\*p<.05, \*\*\*p<.001



(5)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표 13), 홍삼의 경우 남자(33.9%)는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여자(17.2%)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5$ ),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여자(47.8%)는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남자(20.7%)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비타민보충제, 오메가-3, 루테인, 무기질보충제, 밀크씨슬, 식이섬유보충제, 프로폴리스추출물, 인삼, 글루코사민, 알로에 겔, 히알루론산, 프락토올리고당, 클로렐라, 기타 품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구분		성별		$\chi^2$
		남자	여자	
비타민보충제	매일 섭취	64(52.9)	88(48.9)	0.735
	주 1회 섭취	14(11.6)	26(14.4)	
	월 1회 섭취	6(5.0)	10(5.6)	
	분기 1회 섭취	4(3.3)	6(3.3)	
	섭취하지 않음	33(27.3)	50(27.8)	
홍삼	매일 섭취	41(33.9)	31(17.2)	11.778*
	주 1회 섭취	14(11.6)	22(12.2)	
	월 1회 섭취	7(5.8)	10(5.6)	
	분기 1회 섭취	10(8.3)	22(12.2)	
	섭취하지 않음	49(40.5)	95(52.8)	
오메가-3	매일 섭취	39(32.2)	48(26.7)	4.059
	주 1회 섭취	7(5.8)	15(8.3)	
	월 1회 섭취	1(0.8)	5(2.8)	
	분기 1회 섭취	8(6.6)	7(3.9)	
	섭취하지 않음	66(54.5)	105(58.3)	
프로바이오틱스	매일 섭취	25(20.7)	86(47.8)	23.598***
	주 1회 섭취	12(9.9)	14(7.8)	
	월 1회 섭취	3(2.5)	3(1.7)	
	분기 1회 섭취	5(4.1)	7(3.9)	
	섭취하지 않음	76(62.8)	70(38.9)	
루테인	매일 섭취	19(15.7)	30(16.7)	1.258
	주 1회 섭취	4(3.3)	10(5.6)	
	월 1회 섭취	5(4.1)	7(3.9)	
	분기 1회 섭취	9(7.4)	10(5.6)	
	섭취하지 않음	84(69.4)	123(68.3)	
무기질보충제	매일 섭취	18(14.9)	27(15.0)	5.045
	주 1회 섭취	3(2.5)	12(6.7)	
	월 1회 섭취	2(1.7)	6(3.3)	
	분기 1회 섭취	7(5.8)	5(2.8)	
	섭취하지 않음	91(75.2)	130(72.2)	

표 13.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계속)

N(%)

구분		성별		$\chi^2$
		남자	여자	
밀크씨슬	매일 섭취	17(14.0)	9(5.0)	8.048
	주 1회 섭취	3(2.5)	7(3.9)	
	월 1회 섭취	2(1.7)	4(2.2)	
	분기 1회 섭취	7(5.8)	9(5.0)	
	섭취하지 않음	92(76.0)	151(83.9)	
식이섬유보충제	매일 섭취	4(3.3)	8(4.4)	1.443
	주 1회 섭취	4(3.3)	8(4.4)	
	월 1회 섭취	2(1.7)	5(2.8)	
	분기 1회 섭취	7(5.8)	7(3.9)	
	섭취하지 않음	104(86.0)	152(84.4)	
프로폴리스추출물	매일 섭취	2(1.7)	9(5.0)	2.447
	주 1회 섭취	3(2.5)	5(2.8)	
	월 1회 섭취	1(0.8)	2(1.1)	
	분기 1회 섭취	9(7.4)	12(6.7)	
	섭취하지 않음	106(87.6)	152(84.4)	
인삼	매일 섭취	0(0.0)	1(0.6)	3.078
	주 1회 섭취	1(0.8)	6(3.3)	
	월 1회 섭취	3(2.5)	3(1.7)	
	분기 1회 섭취	10(8.3)	17(9.4)	
	섭취하지 않음	107(88.4)	153(85.0)	
글루코사민	매일 섭취	5(4.1)	2(1.1)	5.382
	주 1회 섭취	2(1.7)	5(2.8)	
	월 1회 섭취	0(0.0)	2(1.1)	
	분기 1회 섭취	9(7.4)	9(5.0)	
	섭취하지 않음	105(86.8)	162(90.0)	
알로에 겔	매일 섭취	4(3.3)	2(1.1)	3.913
	주 1회 섭취	2(1.7)	4(2.2)	
	월 1회 섭취	0(0.0)	3(1.7)	
	분기 1회 섭취	8(6.6)	11(6.1)	
	섭취하지 않음	107(88.4)	160(88.9)	
히알루론산	매일 섭취	1(0.8)	4(2.2)	2.978
	주 1회 섭취	1(0.8)	4(2.2)	
	월 1회 섭취	1(0.8)	2(1.1)	
	분기 1회 섭취	10(8.3)	9(5.0)	
	섭취하지 않음	108(89.3)	161(89.4)	
프락토올리고당	매일 섭취	1(0.8)	4(2.2)	1.944
	주 1회 섭취	3(2.5)	6(3.3)	
	월 1회 섭취	2(1.7)	1(0.6)	
	분기 1회 섭취	6(5.0)	8(4.4)	
	섭취하지 않음	109(90.1)	161(89.4)	
클로렐라	매일 섭취	1(0.8)	2(1.1)	5.740
	주 1회 섭취	1(0.8)	3(1.7)	
	월 1회 섭취	3(2.5)	0(0.0)	
	분기 1회 섭취	9(7.4)	9(5.0)	
	섭취하지 않음	107(88.4)	166(92.2)	
기타	매일 섭취	6(5.0)	13(7.2)	5.648
	주 1회 섭취	1(0.8)	6(3.3)	
	월 1회 섭취	0(0.0)	2(1.1)	
	분기 1회 섭취	9(7.4)	7(3.9)	
	섭취하지 않음	105(86.8)	152(84.4)	

\*p<.05, \*\*\*p<.001

(6)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을 분석한 결과(표 14), 홍삼의 경우 남자(16.5%)는 5만원 미만인 비율이 여자(6.7%)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5$ ),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여자(36.7%)는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남자(23.1%)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비타민보충제, 오메가-3, 루테인, 무기질보충제, 밀크씨슬, 식이섬유보충제, 프로폴리스추출물, 인삼, 글루코사민, 알로에 겔, 히알루론산, 프락토올리고당, 클로렐라, 기타 품목별 1회 구매가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4.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구분	성별		$\chi^2$	
	남자	여자		
비타민보충제	5만원 미만	54(44.6)	79(43.9)	2.143
	5-10만원 미만	22(18.2)	39(21.7)	
	10-20만원 미만	7(5.8)	5(2.8)	
	20만원 이상	1(0.8)	2(1.1)	
	구매하지 않음	37(30.6)	55(30.6)	
홍삼	5만원 미만	20(16.5)	12(6.7)	10.290*
	5-10만원 미만	31(25.6)	36(20.0)	
	10-20만원 미만	11(9.1)	20(11.1)	
	20만원 이상	7(5.8)	12(6.7)	
	구매하지 않음	52(43.0)	100(55.6)	
오메가-3	5만원 미만	35(28.9)	40(22.2)	4.543
	5-10만원 미만	14(11.6)	26(14.4)	
	10-20만원 미만	7(5.8)	7(3.9)	
	20만원 이상	0(0.0)	3(1.7)	
	구매하지 않음	65(53.7)	104(57.8)	
프로바이오틱스	5만원 미만	28(23.1)	66(36.7)	20.030***
	5-10만원 미만	9(7.4)	34(18.9)	
	10-20만원 미만	4(3.3)	6(3.3)	
	20만원 이상	2(1.7)	3(1.7)	
	구매하지 않음	78(64.5)	71(39.4)	
루테인	5만원 미만	24(19.8)	38(21.1)	0.503
	5-10만원 미만	8(6.6)	15(8.3)	
	10-20만원 미만	3(2.5)	4(2.2)	
	20만원 이상	1(0.8)	1(0.6)	
	구매하지 않음	85(70.2)	122(67.8)	
무기질보충제	5만원 미만	19(15.7)	37(20.6)	2.248
	5-10만원 미만	8(6.6)	7(3.9)	
	10-20만원 미만	2(1.7)	4(2.2)	
	20만원 이상	1(0.8)	1(0.6)	
	구매하지 않음	91(75.2)	131(72.8)	

표 14. 성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계속)

N(%)

구분		성별		$\chi^2$
		남자	여자	
밀크씨슬	5만원 미만	16(13.2)	17(9.4)	3.105
	5-10만원 미만	9(7.4)	8(4.4)	
	10-20만원 미만	2(1.7)	3(1.7)	
	20만원 이상	0(0.0)	1(0.6)	
	구매하지 않음	94(77.7)	151(83.9)	
식이섬유보충제	5만원 미만	10(8.3)	16(8.9)	1.223
	5-10만원 미만	4(3.3)	8(4.4)	
	10-20만원 미만	1(0.8)	1(0.6)	
	20만원 이상	2(1.7)	1(0.6)	
	구매하지 않음	104(86.0)	154(85.6)	
프로폴리스추출물	5만원 미만	7(5.8)	17(9.4)	1.390
	5-10만원 미만	5(4.1)	7(3.9)	
	10-20만원 미만	2(1.7)	3(1.7)	
	20만원 이상	1(0.8)	1(0.6)	
	구매하지 않음	106(87.6)	152(84.4)	
인삼	5만원 미만	9(7.4)	6(3.3)	7.242
	5-10만원 미만	3(2.5)	12(6.7)	
	10-20만원 미만	3(2.5)	6(3.3)	
	20만원 이상	0(0.0)	3(1.7)	
	구매하지 않음	106(87.6)	153(85.0)	
글루코사민	5만원 미만	8(6.6)	9(5.0)	2.283
	5-10만원 미만	7(5.8)	7(3.9)	
	10-20만원 미만	0(0.0)	1(0.6)	
	20만원 이상	0(0.0)	1(0.6)	
	구매하지 않음	106(87.6)	162(90.0)	
알로에 겔	5만원 미만	7(5.8)	8(4.4)	2.013
	5-10만원 미만	5(4.1)	8(4.4)	
	10-20만원 미만	1(0.8)	3(1.7)	
	20만원 이상	0(0.0)	2(1.1)	
	구매하지 않음	108(89.3)	159(88.3)	
히알루론산	5만원 미만	7(5.8)	9(5.0)	3.155
	5-10만원 미만	4(3.3)	8(4.4)	
	10-20만원 미만	1(0.8)	0(0.0)	
	20만원 이상	0(0.0)	2(1.1)	
	구매하지 않음	109(90.1)	161(89.4)	
프락토올리고당	5만원 미만	7(5.8)	12(6.7)	0.853
	5-10만원 미만	4(3.3)	6(3.3)	
	10-20만원 미만	1(0.8)	1(0.6)	
	20만원 이상	0(0.0)	1(0.6)	
	구매하지 않음	109(90.1)	160(88.9)	
클로렐라	5만원 미만	7(5.8)	6(3.3)	3.359
	5-10만원 미만	3(2.5)	8(4.4)	
	10-20만원 미만	1(0.8)	0(0.0)	
	20만원 이상	1(0.8)	1(0.6)	
	구매하지 않음	109(90.1)	165(91.7)	
기타	5만원 미만	10(8.3)	15(8.3)	2.191
	5-10만원 미만	5(4.1)	9(5.0)	
	10-20만원 미만	0(0.0)	2(1.1)	
	20만원 이상	0(0.0)	1(0.6)	
	구매하지 않음	106(87.6)	153(85.0)	

\*p<.05, \*\*\*p<.001

(7)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하였다. 비타민보충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60대(36.5%)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홍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60대(53.8%)는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무기질보충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40대(14.3%)에서 주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식이섬유보충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40대(8.9%)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50대(8.7%)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20대(6.5%)에서 주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40대(7.1%)는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기타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40대(10.7%)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밀크씨슬, 인삼, 글루코사민, 알로에 겔, 히알루론산, 클로렐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5.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구분		연령					χ <sup>2</sup>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타민보충제	매일 섭취	26(41.9)	32(51.6)	29(51.8)	39(56.5)	26(50.0)	28.840*
	주 1회 섭취	13(21.0)	8(12.9)	8(14.3)	4(5.8)	7(13.5)	
	월 1회 섭취	8(12.9)	3(4.8)	3(5.4)	2(2.9)	0(0.0)	
	분기 1회 섭취	1(1.6)	2(3.2)	5(8.9)	2(2.9)	0(0.0)	
	섭취하지 않음	14(22.6)	17(27.4)	11(19.6)	22(31.9)	19(36.5)	
홍삼	매일 섭취	1(1.6)	11(17.7)	6(10.7)	26(37.7)	28(53.8)	80.444***
	주 1회 섭취	7(11.3)	6(9.7)	7(12.5)	4(5.8)	12(23.1)	
	월 1회 섭취	6(9.7)	1(1.6)	3(5.4)	6(8.7)	1(1.9)	
	분기 1회 섭취	12(19.4)	8(12.9)	7(12.5)	4(5.8)	1(1.9)	
	섭취하지 않음	36(58.1)	36(58.1)	33(58.9)	29(42.0)	10(19.2)	
오메가-3	매일 섭취	11(17.7)	19(30.6)	12(21.4)	26(37.7)	19(36.5)	21.894
	주 1회 섭취	7(11.3)	1(1.6)	5(8.9)	3(4.3)	6(11.5)	
	월 1회 섭취	2(3.2)	2(3.2)	1(1.8)	1(1.4)	0(0.0)	
	분기 1회 섭취	5(8.1)	3(4.8)	5(8.9)	2(2.9)	0(0.0)	
	섭취하지 않음	37(59.7)	37(59.7)	33(58.9)	37(53.6)	27(51.9)	
프로바이오틱스	매일 섭취	26(41.9)	25(40.3)	24(42.9)	22(31.9)	14(26.9)	22.050
	주 1회 섭취	7(11.3)	8(12.9)	4(7.1)	4(5.8)	3(5.8)	
	월 1회 섭취	2(3.2)	1(1.6)	2(3.6)	0(0.0)	1(1.9)	
	분기 1회 섭취	5(8.1)	2(3.2)	3(5.4)	2(2.9)	0(0.0)	
	섭취하지 않음	22(35.5)	26(41.9)	23(41.1)	41(59.4)	34(65.4)	
루테인	매일 섭취	6(9.7)	11(17.7)	10(17.9)	18(26.1)	4(7.7)	24.865
	주 1회 섭취	4(6.5)	2(3.2)	4(7.1)	1(1.4)	3(5.8)	
	월 1회 섭취	4(6.5)	4(6.5)	2(3.6)	1(1.4)	1(1.9)	
	분기 1회 섭취	8(12.9)	3(4.8)	5(8.9)	2(2.9)	1(1.9)	
	섭취하지 않음	40(64.5)	42(67.7)	35(62.5)	47(68.1)	43(82.7)	
무기질보충제	매일 섭취	10(16.1)	9(14.5)	9(16.1)	9(13.0)	8(15.4)	27.358*
	주 1회 섭취	3(4.8)	1(1.6)	8(14.3)	1(1.4)	2(3.8)	
	월 1회 섭취	2(3.2)	2(3.2)	1(1.8)	1(1.4)	2(3.8)	
	분기 1회 섭취	5(8.1)	1(1.6)	5(8.9)	1(1.4)	0(0.0)	
	섭취하지 않음	42(67.7)	49(79.0)	33(58.9)	57(82.6)	40(76.9)	
밀크씨슬	매일 섭취	8(12.9)	8(12.9)	4(7.1)	4(5.8)	2(3.8)	24.571
	주 1회 섭취	3(4.8)	3(4.8)	1(1.8)	1(1.4)	2(3.8)	
	월 1회 섭취	1(1.6)	1(1.6)	3(5.4)	0(0.0)	1(1.9)	
	분기 1회 섭취	7(11.3)	3(4.8)	5(8.9)	1(1.4)	0(0.0)	
	섭취하지 않음	43(69.4)	47(75.8)	43(76.8)	63(91.3)	47(90.4)	
식이섬유보충제	매일 섭취	2(3.2)	0(0.0)	5(8.9)	4(5.8)	1(1.9)	26.709*
	주 1회 섭취	7(11.3)	1(1.6)	0(0.0)	2(2.9)	2(3.8)	
	월 1회 섭취	1(1.6)	2(3.2)	2(3.6)	0(0.0)	2(3.8)	
	분기 1회 섭취	5(8.1)	3(4.8)	3(5.4)	3(4.3)	0(0.0)	
	섭취하지 않음	47(75.8)	56(90.3)	46(82.1)	60(87.0)	47(90.4)	
프로폴리스추출물	매일 섭취	1(1.6)	1(1.6)	3(5.4)	6(8.7)	0(0.0)	27.474*
	주 1회 섭취	2(3.2)	1(1.6)	1(1.8)	1(1.4)	3(5.8)	
	월 1회 섭취	1(1.6)	0(0.0)	0(0.0)	1(1.4)	1(1.9)	
	분기 1회 섭취	8(12.9)	3(4.8)	8(14.3)	2(2.9)	0(0.0)	
	섭취하지 않음	50(80.6)	57(91.9)	44(78.6)	59(85.5)	48(92.3)	
인삼	매일 섭취	0(0.0)	0(0.0)	0(0.0)	0(0.0)	1(1.9)	17.764
	주 1회 섭취	1(1.6)	0(0.0)	1(1.8)	3(4.3)	2(3.8)	
	월 1회 섭취	1(1.6)	0(0.0)	3(5.4)	1(1.4)	1(1.9)	
	분기 1회 섭취	9(14.5)	6(9.7)	6(10.7)	3(4.3)	3(5.8)	
	섭취하지 않음	51(82.3)	56(90.3)	46(82.1)	62(89.9)	45(86.5)	
글루코사민	매일 섭취	0(0.0)	1(1.6)	2(3.6)	3(4.3)	1(1.9)	23.736
	주 1회 섭취	1(1.6)	0(0.0)	2(3.6)	1(1.4)	3(5.8)	
	월 1회 섭취	0(0.0)	1(1.6)	0(0.0)	0(0.0)	1(1.9)	
	분기 1회 섭취	9(14.5)	3(4.8)	4(7.1)	2(2.9)	0(0.0)	
	섭취하지 않음	52(83.9)	57(91.9)	48(85.7)	63(91.3)	47(90.4)	

표 15.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계속)

구분		연령					χ <sup>2</sup>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알로에 겔	매일 섭취	1(1.6)	1(1.6)	1(1.8)	2(2.9)	1(1.9)	15.475
	주 1회 섭취	2(3.2)	1(1.6)	0(0.0)	1(1.4)	2(3.8)	
	월 1회 섭취	1(1.6)	0(0.0)	1(1.8)	0(0.0)	1(1.9)	
	분기 1회 섭취	8(12.9)	4(6.5)	5(8.9)	2(2.9)	0(0.0)	
	섭취하지 않음	50(80.6)	56(90.3)	49(87.5)	64(92.8)	48(92.3)	
히알루론산	매일 섭취	1(1.6)	0(0.0)	3(5.4)	1(1.4)	0(0.0)	24.686
	주 1회 섭취	1(1.6)	0(0.0)	1(1.8)	1(1.4)	2(3.8)	
	월 1회 섭취	1(1.6)	0(0.0)	1(1.8)	0(0.0)	1(1.9)	
	분기 1회 섭취	8(12.9)	4(6.5)	6(10.7)	1(1.4)	0(0.0)	
	섭취하지 않음	51(82.3)	58(93.5)	45(80.4)	66(95.7)	49(94.2)	
프락토올리고당	매일 섭취	0(0.0)	0(0.0)	4(7.1)	1(1.4)	0(0.0)	33.672**
	주 1회 섭취	4(6.5)	1(1.6)	0(0.0)	1(1.4)	3(5.8)	
	월 1회 섭취	2(3.2)	0(0.0)	1(1.8)	0(0.0)	0(0.0)	
	분기 1회 섭취	6(9.7)	4(6.5)	3(5.4)	1(1.4)	0(0.0)	
	섭취하지 않음	50(80.6)	57(91.9)	48(85.7)	66(95.7)	49(94.2)	
클로렐라	매일 섭취	0(0.0)	0(0.0)	1(1.8)	2(2.9)	0(0.0)	22.252
	주 1회 섭취	1(1.6)	0(0.0)	1(1.8)	0(0.0)	2(3.8)	
	월 1회 섭취	1(1.6)	1(1.6)	0(0.0)	0(0.0)	1(1.9)	
	분기 1회 섭취	7(11.3)	4(6.5)	6(10.7)	1(1.4)	0(0.0)	
	섭취하지 않음	53(85.5)	57(91.9)	48(85.7)	66(95.7)	49(94.2)	
기타	매일 섭취	6(9.7)	4(6.5)	6(10.7)	3(4.3)	0(0.0)	36.940**
	주 1회 섭취	3(4.8)	2(3.2)	2(3.6)	0(0.0)	0(0.0)	
	월 1회 섭취	2(3.2)	0(0.0)	0(0.0)	0(0.0)	0(0.0)	
	분기 1회 섭취	8(12.9)	2(3.2)	5(8.9)	1(1.4)	0(0.0)	
	섭취하지 않음	43(69.4)	54(87.1)	43(76.8)	65(94.2)	52(100.0)	

\*p<.05, \*\*p<.01, \*\*\*p<.001

(8)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에 제시하였다. 비타민보충제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60대(36.5%)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홍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50대(11.6%)에서 20만원 이상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20대(48.4%)에서는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루테인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40대(3.6%)에서 20만원 이상인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밀크씨슬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20대(19.4%)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기타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으나 20대(17.7%)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오메가-3, 무기질보충제, 식이섬유보충제, 프로폴리스추출물, 인삼, 글루코사민, 알로에 겔, 히알루론산, 프락토올리고당, 클로렐라 품목별 1회 구매가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N(%)

구분		연령					$\chi^2$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타민보충제	5만원 미만	32(51.6)	31(50.0)	25(44.6)	23(33.3)	22(42.3)	33.324**
	5-10만원 미만	15(24.2)	10(16.1)	11(19.6)	20(29.0)	5(9.6)	
	10-20만원 미만	0(0.0)	0(0.0)	6(10.7)	1(1.4)	5(9.6)	
	20만원 이상	0(0.0)	0(0.0)	0(0.0)	2(2.9)	1(1.9)	
	구매하지 않음	15(24.2)	21(33.9)	14(25.0)	23(33.3)	19(36.5)	
홍삼	5만원 미만	7(11.3)	5(8.1)	4(7.1)	4(5.8)	12(23.1)	43.422***
	5-10만원 미만	11(17.7)	12(19.4)	10(17.9)	16(23.2)	18(34.6)	
	10-20만원 미만	2(3.2)	4(6.5)	6(10.7)	12(17.4)	7(13.5)	
	20만원 이상	3(4.8)	1(1.6)	3(5.4)	8(11.6)	4(7.7)	
	구매하지 않음	39(62.9)	40(64.5)	33(58.9)	29(42.0)	11(21.2)	
오메가-3	5만원 미만	16(25.8)	19(30.6)	10(17.9)	15(21.7)	15(28.8)	13.708
	5-10만원 미만	7(11.3)	5(8.1)	9(16.1)	14(20.3)	5(9.6)	
	10-20만원 미만	1(1.6)	2(3.2)	5(8.9)	3(4.3)	3(5.8)	
	20만원 이상	1(1.6)	0(0.0)	0(0.0)	1(1.4)	1(1.9)	
	구매하지 않음	37(59.7)	36(58.1)	32(57.1)	36(52.2)	28(53.8)	
프로바이오틱스	5만원 미만	30(48.4)	23(37.1)	17(30.4)	11(15.9)	13(25.0)	40.007***
	5-10만원 미만	10(16.1)	10(16.1)	10(17.9)	11(15.9)	2(3.8)	
	10-20만원 미만	0(0.0)	0(0.0)	5(8.9)	4(5.8)	1(1.9)	
	20만원 이상	1(1.6)	0(0.0)	0(0.0)	2(2.9)	2(3.8)	
	구매하지 않음	21(33.9)	29(46.8)	24(42.9)	41(59.4)	34(65.4)	
루테인	5만원 미만	16(25.8)	17(27.4)	13(23.2)	13(18.8)	3(5.8)	27.380*
	5-10만원 미만	5(8.1)	3(4.8)	6(10.7)	6(8.7)	3(5.8)	
	10-20만원 미만	0(0.0)	0(0.0)	1(1.8)	3(4.3)	3(5.8)	
	20만원 이상	0(0.0)	0(0.0)	2(3.6)	0(0.0)	0(0.0)	
	구매하지 않음	41(66.1)	42(67.7)	34(60.7)	47(68.1)	43(82.7)	
무기질보충제	5만원 미만	14(22.6)	10(16.1)	17(30.4)	8(11.6)	7(13.5)	21.850
	5-10만원 미만	4(6.5)	2(3.2)	4(7.1)	1(1.4)	4(7.7)	
	10-20만원 미만	0(0.0)	1(1.6)	3(5.4)	1(1.4)	1(1.9)	
	20만원 이상	1(1.6)	0(0.0)	0(0.0)	1(1.4)	0(0.0)	
	구매하지 않음	43(69.4)	49(79.0)	32(57.1)	58(84.1)	40(76.9)	
밀크씨슬	5만원 미만	12(19.4)	10(16.1)	8(14.3)	2(2.9)	1(1.9)	26.675*
	5-10만원 미만	5(8.1)	4(6.5)	4(7.1)	2(2.9)	2(3.8)	
	10-20만원 미만	0(0.0)	0(0.0)	1(1.8)	2(2.9)	2(3.8)	
	20만원 이상	1(1.6)	0(0.0)	0(0.0)	0(0.0)	0(0.0)	
	구매하지 않음	44(71.0)	48(77.4)	43(76.8)	63(91.3)	47(90.4)	
식이섬유보충제	5만원 미만	10(16.1)	4(6.5)	5(8.9)	5(7.2)	2(3.8)	12.295
	5-10만원 미만	2(3.2)	2(3.2)	3(5.4)	3(4.3)	2(3.8)	
	10-20만원 미만	0(0.0)	0(0.0)	1(1.8)	1(1.4)	0(0.0)	
	20만원 이상	1(1.6)	0(0.0)	1(1.8)	0(0.0)	1(1.9)	
	구매하지 않음	49(79.0)	56(90.3)	46(82.1)	60(87.0)	47(90.4)	
프로폴리스추출물	5만원 미만	8(12.9)	2(3.2)	5(8.9)	7(10.1)	2(3.8)	19.544
	5-10만원 미만	2(3.2)	2(3.2)	6(10.7)	1(1.4)	1(1.9)	
	10-20만원 미만	1(1.6)	0(0.0)	1(1.8)	2(2.9)	1(1.9)	
	20만원 이상	1(1.6)	0(0.0)	0(0.0)	0(0.0)	1(1.9)	
	구매하지 않음	50(80.6)	58(93.5)	44(78.6)	59(85.5)	47(90.4)	
인삼	5만원 미만	5(8.1)	3(4.8)	5(8.9)	1(1.4)	1(1.9)	16.712
	5-10만원 미만	2(3.2)	1(1.6)	3(5.4)	5(7.2)	4(7.7)	
	10-20만원 미만	2(3.2)	1(1.6)	3(5.4)	1(1.4)	2(3.8)	
	20만원 이상	2(3.2)	1(1.6)	0(0.0)	0(0.0)	0(0.0)	
	구매하지 않음	51(82.3)	56(90.3)	45(80.4)	62(89.9)	45(86.5)	
글루코사민	5만원 미만	6(9.7)	2(3.2)	4(7.1)	4(5.8)	1(1.9)	14.456
	5-10만원 미만	2(3.2)	3(4.8)	4(7.1)	2(2.9)	3(5.8)	
	10-20만원 미만	0(0.0)	0(0.0)	0(0.0)	0(0.0)	1(1.9)	
	20만원 이상	1(1.6)	0(0.0)	0(0.0)	0(0.0)	0(0.0)	
	구매하지 않음	53(85.5)	57(91.9)	48(85.7)	63(91.3)	47(90.4)	

표 16.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계속)

구분	연령					χ <sup>2</sup>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히알루론산	5만원 미만	6(9.7)	3(4.8)	5(8.9)	2(2.9)	0(0.0)	21.857
	5-10만원 미만	3(4.8)	1(1.6)	5(8.9)	1(1.4)	2(3.8)	
	10-20만원 미만	0(0.0)	0(0.0)	0(0.0)	0(0.0)	1(1.9)	
	20만원 이상	1(1.6)	0(0.0)	1(1.8)	0(0.0)	0(0.0)	
	구매하지 않음	52(83.9)	58(93.5)	45(80.4)	66(95.7)	49(94.2)	
알로에 쥬얼	5만원 미만	6(9.7)	3(4.8)	3(5.4)	3(4.3)	0(0.0)	14.599
	5-10만원 미만	4(6.5)	2(3.2)	2(3.6)	2(2.9)	3(5.8)	
	10-20만원 미만	0(0.0)	1(1.6)	2(3.6)	0(0.0)	1(1.9)	
	20만원 이상	1(1.6)	0(0.0)	1(1.8)	0(0.0)	0(0.0)	
	구매하지 않음	51(82.3)	56(90.3)	48(85.7)	64(92.8)	48(92.3)	
프락토올리고당	5만원 미만	8(12.9)	4(6.5)	5(8.9)	2(2.9)	0(0.0)	19.327
	5-10만원 미만	2(3.2)	2(3.2)	3(5.4)	1(1.4)	2(3.8)	
	10-20만원 미만	0(0.0)	0(0.0)	1(1.8)	0(0.0)	1(1.9)	
	20만원 이상	1(1.6)	0(0.0)	0(0.0)	0(0.0)	0(0.0)	
	구매하지 않음	51(82.3)	56(90.3)	47(83.9)	66(95.7)	49(94.2)	
클로렐라	5만원 미만	6(9.7)	2(3.2)	3(5.4)	2(2.9)	0(0.0)	18.195
	5-10만원 미만	2(3.2)	2(3.2)	4(7.1)	1(1.4)	2(3.8)	
	10-20만원 미만	0(0.0)	0(0.0)	1(1.8)	0(0.0)	0(0.0)	
	20만원 이상	1(1.6)	0(0.0)	0(0.0)	0(0.0)	1(1.9)	
	구매하지 않음	53(85.5)	58(93.5)	48(85.7)	66(95.7)	49(94.2)	
기타	5만원 미만	11(17.7)	5(8.1)	7(12.5)	2(2.9)	0(0.0)	39.370***
	5-10만원 미만	6(9.7)	3(4.8)	4(7.1)	1(1.4)	0(0.0)	
	10-20만원 미만	0(0.0)	0(0.0)	2(3.6)	0(0.0)	0(0.0)	
	20만원 이상	1(1.6)	0(0.0)	0(0.0)	0(0.0)	0(0.0)	
	구매하지 않음	44(71.0)	54(87.1)	43(76.8)	66(95.7)	52(100.0)	

\*p<.05, \*\*p<.01, \*\*\*p<.001

## 5)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 (1)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음주 빈도는 ‘아주 많다’에서 한 달에 1번 정도(29.2%)의 비율이 높았고, ‘그저 그렇다’에서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다(24.4%)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흡연 여부는 ‘아주 많다’에서 하루에 반 갑 이상이다(22.2%)의 비율이 높았고, ‘그저 그렇다’에서 가끔 피운다(25.0%)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건강 관심 정도는 ‘아주 많다’에서 매우 높다(51.9%)의 비율이 높았고, ‘그저 그렇다’에서 낮다(45.0%)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조사대상자의 하루 취침시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자신의 건강상태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7.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N(%)

구분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chi^2$	
	아주 많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관심 없다		
음주 빈도	술을 마셔 본 적 없다	3(11.5)	16(61.5)	7(26.9)	0(0.0)	26.025*
	한 달에 1번 정도	19(29.2)	33(50.8)	12(18.5)	1(1.5)	
	한달에 2-4번	19(20.7)	59(64.1)	13(14.1)	1(1.1)	
	일주일에 2-3번 정도	6(9.1)	46(69.7)	9(13.6)	5(7.6)	
	일주일에 4번 이상	1(9.1)	9(81.8)	1(9.1)	0(0.0)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다	11(26.8)	19(46.3)	10(24.4)	1(2.4)	
흡연 여부	피우지 않는다	52(21.8)	134(56.3)	46(19.3)	6(2.5)	19.750*
	가끔 피운다	2(10.0)	13(65.0)	5(25.0)	0(0.0)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다	1(4.0)	22(88.0)	0(0.0)	2(8.0)	
	하루에 반 갑 이상이다	4(22.2)	13(72.2)	1(5.6)	0(0.0)	
하루 취침 시간	5시간 미만	2(12.5)	10(62.5)	3(18.8)	1(6.3)	4.455
	5-7시간 미만	40(19.5)	125(61.0)	33(16.1)	7(3.4)	
	7시간 이상	17(21.3)	47(58.8)	16(20.0)	0(0.0)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4(13.3)	20(66.7)	5(16.7)	1(3.3)	8.928
	조금 느끼는 편이다	28(16.4)	109(63.7)	28(16.4)	6(3.5)	
	많이 느끼는 편이다	24(27.3)	45(51.1)	18(20.5)	1(1.1)	
	대단히 많이 느낀다	3(25.0)	8(66.7)	1(8.3)	0(0.0)	
건강 관심 정도	매우 낮다	0(0.0)	1(100.0)	0(0.0)	0(0.0)	65.714***
	낮다	1(5.0)	8(40.0)	9(45.0)	2(10.0)	
	보통이다	12(7.7)	104(67.1)	33(21.3)	6(3.9)	
	높다	32(32.7)	57(58.2)	9(9.2)	0(0.0)	
	매우 높다	14(51.9)	12(44.4)	1(3.7)	0(0.0)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	매우 나쁘다	1(20.0)	2(40.0)	1(20.0)	1(20.0)	12.071
	나쁘다	9(17.0)	31(58.5)	13(24.5)	0(0.0)	
	보통이다	33(18.9)	108(61.7)	29(16.6)	5(2.9)	
	좋다	14(22.2)	39(61.9)	8(12.7)	2(3.2)	
	매우 좋다	2(40.0)	2(40.0)	1(20.0)	0(0.0)	

\*p<.05, \*\*\*p<.001

## (2)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에 제시하였다. 하루 취침 시간은 ‘잘 알고 있다’에서 7시간 이상(16.3%)의 비율이 높았고, ‘잘 모른다’에서 5시간 미만(31.3%)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건강 관심 정도는 ‘잘 알고 있다’에서 매우 높다(22.2%)의 비율이 높았고, ‘잘 모른다’에서 낮다(40.0%)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 흡연여부, 일상 스트레스 정도, 자신의 건강상태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8.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

구분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				χ <sup>2</sup>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음주 빈도	술을 마셔 본 적 없다	2(7.7)	13(50.0)	6(23.1)	5(19.2)	11.347
	한 달에 1번 정도	10(15.4)	25(38.5)	22(33.8)	8(12.3)	
	한달에 2-4번	8(8.7)	47(51.1)	28(30.4)	9(9.8)	
	일주일에 2-3번 정도	4(6.1)	34(51.5)	17(25.8)	11(16.7)	
	일주일에 4번 이상	0(0.0)	7(63.6)	3(27.3)	1(9.1)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다	4(9.8)	22(53.7)	12(29.3)	3(7.3)	
흡연 여부	피우지 않는다	23(9.7)	113(47.5)	73(30.7)	29(12.2)	3.037
	가끔 피운다	2(10.0)	9(45.0)	6(30.0)	3(15.0)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다	2(8.0)	15(60.0)	5(20.0)	3(12.0)	
	하루에 반 갑 이상이다	1(5.6)	11(61.1)	4(22.2)	2(11.1)	
하루 취침 시간	5시간 미만	1(6.3)	4(25.0)	6(37.5)	5(31.3)	17.282**
	5-7시간 미만	14(6.8)	109(53.2)	63(30.7)	19(9.3)	
	7시간 이상	13(16.3)	35(43.8)	19(23.8)	13(16.3)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4(13.3)	12(40.0)	9(30.0)	5(16.7)	5.466
	조금 느끼는 편이다	15(8.8)	87(50.9)	47(27.5)	22(12.9)	
	많이 느끼는 편이다	9(10.2)	44(50.0)	26(29.5)	9(10.2)	
	대단히 많이 느낀다	0(0.0)	5(41.7)	6(50.0)	1(8.3)	
건강 관심 정도	매우 낮다	0(0.0)	1(100.0)	0(0.0)	0(0.0)	40.329***
	낮다	0(0.0)	4(20.0)	8(40.0)	8(40.0)	
	보통이다	9(5.8)	81(52.3)	41(26.5)	24(15.5)	
	높다	13(13.3)	46(46.9)	34(34.7)	5(5.1)	
	매우 높다	6(22.2)	16(59.3)	5(18.5)	0(0.0)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	매우 나쁘다	0(0.0)	1(20.0)	4(80.0)	0(0.0)	19.676
	나쁘다	4(7.5)	26(49.1)	15(28.3)	8(15.1)	
	보통이다	12(6.9)	87(49.7)	56(32.0)	20(11.4)	
	좋다	12(19.0)	30(47.6)	12(19.0)	9(14.3)	
	매우 좋다	0(0.0)	4(80.0)	1(20.0)	0(0.0)	

\*\*p<.01, \*\*\*p<.001

### (3)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9에 제시하였다. 흡연 여부는 ‘확인한다’에서 피우지 않는다(63.9%)의 비율이 높았고, ‘확인하지 않는다’에서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다(64.0%)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는 ‘확인한다’에서 보통이다(65.7%)의 비율이 높았고, ‘확인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나쁘다(80.0%)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 하루 취침 시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건강관심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9.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구분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chi^2$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음주 빈도	술을 마셔 본 적 없다	18(69.2)	8(30.8)	6.386
	한 달에 1번 정도	40(61.5)	25(38.5)	
	한달에 2-4번	49(53.3)	43(46.7)	
	일주일에 2-3번 정도	34(51.5)	32(48.5)	
	일주일에 4번 이상	8(72.7)	3(27.3)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다	28(68.3)	13(31.7)	
흡연 여부	피우지 않는다	152(63.9)	86(36.1)	12.404**
	가끔 피운다	9(45.0)	11(55.0)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다	9(36.0)	16(64.0)	
	하루에 반 갑 이상이다	7(38.9)	11(61.1)	
하루 취침 시간	5시간 미만	8(50.0)	8(50.0)	0.689
	5-7시간 미만	123(60.0)	82(40.0)	
	7시간 이상	46(57.5)	34(42.5)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16(53.3)	14(46.7)	1.971
	조금 느끼는 편이다	97(56.7)	74(43.3)	
	많이 느끼는 편이다	57(64.8)	31(35.2)	
	대단히 많이 느낀다	7(58.3)	5(41.7)	
건강 관심 정도	매우 낮다	0(0.0)	1(100.0)	7.853
	낮다	7(35.0)	13(65.0)	
	보통이다	90(58.1)	65(41.9)	
	높다	64(65.3)	34(34.7)	
	매우 높다	16(59.3)	11(40.7)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	매우 나쁘다	1(20.0)	4(80.0)	10.595*
	나쁘다	28(52.8)	25(47.2)	
	보통이다	115(65.7)	60(34.3)	
	좋다	30(47.6)	33(52.4)	
	매우 좋다	3(60.0)	2(40.0)	

\*p<.05, \*\*p<.01



#### (4)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0에 제시하였다. 건강 관심 정도는 ‘효과 있다’에서 매우 낮다(100.0%)의 비율이 높았고, ‘잘 모르겠다’에서 매우 높다(48.1%)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 흡연여부, 하루 취침시간,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자신의 건강상태 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0. 건강관련 사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N(%)

구분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chi^2$	
	효과 있다	효과 없다	잘 모르겠다		
음주 빈도	술을 마셔 본 적 없다	24(92.3)	1(3.8)	1(3.8)	17.450
	한 달에 1번 정도	41(63.1)	1(1.5)	23(35.4)	
	한달에 2-4번	58(63.0)	1(1.1)	33(35.9)	
	일주일에 2-3번 정도	36(54.5)	0(0.0)	30(45.5)	
	일주일에 4번 이상	6(54.5)	0(0.0)	5(45.5)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다	25(61.0)	0(0.0)	16(39.0)	
흡연 여부	피우지 않는다	152(63.9)	2(0.8)	84(35.3)	5.472
	가끔 피운다	12(60.0)	1(5.0)	7(35.0)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다	17(68.0)	0(0.0)	8(32.0)	
	하루에 반 갑 이상이다	9(50.0)	0(0.0)	9(50.0)	
하루 취침 시간	5시간 미만	9(56.3)	0(0.0)	7(43.8)	2.371
	5-7시간 미만	127(62.0)	3(1.5)	75(36.6)	
	7시간 이상	54(67.5)	0(0.0)	26(32.5)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20(66.7)	0(0.0)	10(33.3)	6.223
	조금 느끼는 편이다	100(58.5)	3(1.8)	68(39.8)	
	많이 느끼는 편이다	63(71.6)	0(0.0)	25(28.4)	
	대단히 많이 느낀다	7(58.3)	0(0.0)	5(41.7)	
건강 관심 정도	매우 낮다	1(100.0)	0(0.0)	0(0.0)	52.173***
	낮다	8(40.0)	3(15.0)	9(45.0)	
	보통이다	94(60.6)	0(0.0)	61(39.4)	
	높다	73(74.5)	0(0.0)	25(25.5)	
	매우 높다	14(51.9)	0(0.0)	13(48.1)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	매우 나쁘다	1(20.0)	0(0.0)	4(80.0)	12.605
	나쁘다	29(54.7)	2(3.8)	22(41.5)	
	보통이다	115(65.7)	1(0.6)	59(33.7)	
	좋다	43(68.3)	0(0.0)	20(31.7)	
	매우 좋다	2(40.0)	0(0.0)	3(60.0)	

\*\*\*p<.001

(5)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1에 제시하였다. 홍삼의 경우 높다(30.6%)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25.0%)에서 분기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오메가-3의 경우 높다(34.7%)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65.0%)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루테인의 경우 높다(18.4%)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15.0%)에서 월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무기질보충제의 경우 매우 높다(29.6%)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보통이다(78.1%)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밀크씨슬의 경우 매우 높다(14.8%)에서 분기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5.0%)에서 월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식이섬유보충제의 경우 매우 높다(7.4%)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5.0%)에서 분기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경우 매우 높다(7.4%)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보통이다(90.3%)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인삼의 경우 매우 높다(3.7%)에서 월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20.0%)에서 분기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글루코사민의 경우 매우 높다(7.4%)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5.0%)에서 월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알로에 겔의 경우 높다(3.1%)에서 주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5.0%)에서 월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히알루론산의 경우 매우 높다(3.7%)에서 주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15.0%)에서 분기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매우 높다(3.7%)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10.0%)에서 분기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클로렐라의 경우 높다(2.0%)에서 주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낮다(15.0%)에서 분기 1회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비타민보충제, 프로바이오틱스, 기타 품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1.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빈도

N(%)

구분		건강 관심 정도					$\chi^2$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비타민보충제	매일 섭취	0(0.0)	11(55.0)	75(48.4)	53(54.1)	13(48.1)	12.003
	주 1회 섭취	1(100.0)	3(15.0)	24(15.5)	10(10.2)	2(7.4)	
	월 1회 섭취	0(0.0)	1(5.0)	8(5.2)	4(4.1)	3(11.1)	
	분기 1회 섭취	0(0.0)	0(0.0)	6(3.9)	3(3.1)	1(3.7)	
	섭취하지 않음	0(0.0)	5(25.0)	42(27.1)	28(28.6)	8(29.6)	
홍삼	매일 섭취	0(0.0)	6(30.0)	34(21.9)	30(30.6)	2(7.4)	30.373*
	주 1회 섭취	1(100.0)	4(20.0)	18(11.6)	7(7.1)	6(22.2)	
	월 1회 섭취	0(0.0)	0(0.0)	7(4.5)	8(8.2)	2(7.4)	
	분기 1회 섭취	0(0.0)	5(25.0)	13(8.4)	12(12.2)	2(7.4)	
	섭취하지 않음	0(0.0)	5(25.0)	83(53.5)	41(41.8)	15(55.6)	
오메가-3	매일 섭취	0(0.0)	3(15.0)	42(27.1)	34(34.7)	8(29.6)	36.498**
	주 1회 섭취	1(100.0)	0(0.0)	13(8.4)	6(6.1)	2(7.4)	
	월 1회 섭취	0(0.0)	3(15.0)	2(1.3)	1(1.0)	0(0.0)	
	분기 1회 섭취	0(0.0)	1(5.0)	8(5.2)	4(4.1)	2(7.4)	
	섭취하지 않음	0(0.0)	13(65.0)	90(58.1)	53(54.1)	15(55.6)	
프로바이오틱스	매일 섭취	0(0.0)	12(60.0)	46(29.7)	40(40.8)	13(48.1)	24.685
	주 1회 섭취	1(100.0)	2(10.0)	13(8.4)	7(7.1)	3(11.1)	
	월 1회 섭취	0(0.0)	0(0.0)	4(2.6)	2(2.0)	0(0.0)	
	분기 1회 섭취	0(0.0)	0(0.0)	9(5.8)	3(3.1)	0(0.0)	
	섭취하지 않음	0(0.0)	6(30.0)	83(53.5)	46(46.9)	11(40.7)	
루테인	매일 섭취	0(0.0)	1(5.0)	27(17.4)	18(18.4)	3(11.1)	38.526***
	주 1회 섭취	1(100.0)	1(5.0)	10(6.5)	1(1.0)	1(3.7)	
	월 1회 섭취	0(0.0)	3(15.0)	5(3.2)	3(3.1)	1(3.7)	
	분기 1회 섭취	0(0.0)	2(10.0)	6(3.9)	7(7.1)	4(14.8)	
	섭취하지 않음	0(0.0)	13(65.0)	107(69.0)	69(70.4)	18(66.7)	
무기질보충제	매일 섭취	0(0.0)	3(15.0)	19(12.3)	15(15.3)	8(29.6)	51.572***
	주 1회 섭취	0(0.0)	0(0.0)	7(4.5)	6(6.1)	2(7.4)	
	월 1회 섭취	1(100.0)	2(10.0)	2(1.3)	3(3.1)	0(0.0)	
	분기 1회 섭취	0(0.0)	1(5.0)	6(3.9)	3(3.1)	2(7.4)	
	섭취하지 않음	0(0.0)	14(70.0)	121(78.1)	71(72.4)	15(55.6)	
밀크씨슬	매일 섭취	0(0.0)	0(0.0)	16(10.3)	8(8.2)	2(7.4)	43.557***
	주 1회 섭취	1(100.0)	2(10.0)	4(2.6)	3(3.1)	0(0.0)	
	월 1회 섭취	0(0.0)	1(5.0)	2(1.3)	2(2.0)	1(3.7)	
	분기 1회 섭취	0(0.0)	2(10.0)	6(3.9)	4(4.1)	4(14.8)	
	섭취하지 않음	0(0.0)	15(75.0)	127(81.9)	81(82.7)	20(74.1)	
식이섬유보충제	매일 섭취	0(0.0)	1(5.0)	3(1.9)	6(6.1)	2(7.4)	29.810*
	주 1회 섭취	1(100.0)	1(5.0)	6(3.9)	3(3.1)	1(3.7)	
	월 1회 섭취	0(0.0)	1(5.0)	3(1.9)	2(2.0)	1(3.7)	
	분기 1회 섭취	0(0.0)	1(5.0)	7(4.5)	4(4.1)	2(7.4)	
	섭취하지 않음	0(0.0)	16(80.0)	136(87.7)	83(84.7)	21(77.8)	
프로폴리스추출물	매일 섭취	0(0.0)	0(0.0)	3(1.9)	6(6.1)	2(7.4)	60.705***
	주 1회 섭취	1(100.0)	0(0.0)	3(1.9)	1(1.0)	3(11.1)	
	월 1회 섭취	0(0.0)	1(5.0)	1(0.6)	1(1.0)	0(0.0)	
	분기 1회 섭취	0(0.0)	3(15.0)	8(5.2)	6(6.1)	4(14.8)	
	섭취하지 않음	0(0.0)	16(80.0)	140(90.3)	84(85.7)	18(66.7)	
인삼	매일 섭취	0(0.0)	0(0.0)	1(0.6)	0(0.0)	0(0.0)	52.607***
	주 1회 섭취	1(100.0)	0(0.0)	4(2.6)	2(2.0)	0(0.0)	
	월 1회 섭취	0(0.0)	0(0.0)	3(1.9)	2(2.0)	1(3.7)	
	분기 1회 섭취	0(0.0)	4(20.0)	13(8.4)	5(5.1)	5(18.5)	
	섭취하지 않음	0(0.0)	16(80.0)	134(86.5)	89(90.8)	21(77.8)	

표 21.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빈도 (계속)

N(%)

구분	건강 관심 정도					$\chi^2$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글루코사민	매일 섭취	0(0.0)	0(0.0)	3(1.9)	2(2.0)	2(7.4)	59.738***
	주 1회 섭취	1(100.0)	0(0.0)	2(1.3)	2(2.0)	2(7.4)	
	월 1회 섭취	0(0.0)	1(5.0)	0(0.0)	1(1.0)	0(0.0)	
	분기 1회 섭취	0(0.0)	2(10.0)	8(5.2)	5(5.1)	3(11.1)	
	섭취하지 않음	0(0.0)	17(85.0)	142(91.6)	88(89.8)	20(74.1)	
알로에 겔	매일 섭취	0(0.0)	1(5.0)	4(2.6)	0(0.0)	1(3.7)	63.499***
	주 1회 섭취	1(100.0)	0(0.0)	2(1.3)	3(3.1)	0(0.0)	
	월 1회 섭취	0(0.0)	1(5.0)	0(0.0)	1(1.0)	1(3.7)	
	분기 1회 섭취	0(0.0)	2(10.0)	8(5.2)	6(6.1)	3(11.1)	
	섭취하지 않음	0(0.0)	16(80.0)	141(91.0)	88(89.8)	22(81.5)	
히알루론산	매일 섭취	0(0.0)	1(5.0)	1(0.6)	2(2.0)	1(3.7)	68.002***
	주 1회 섭취	1(100.0)	0(0.0)	1(0.6)	2(2.0)	1(3.7)	
	월 1회 섭취	0(0.0)	0(0.0)	2(1.3)	1(1.0)	0(0.0)	
	분기 1회 섭취	0(0.0)	3(15.0)	9(5.8)	5(5.1)	2(7.4)	
	섭취하지 않음	0(0.0)	16(80.0)	142(91.6)	88(89.8)	23(85.2)	
프락토올리고당	매일 섭취	0(0.0)	0(0.0)	1(0.6)	3(3.1)	1(3.7)	42.071***
	주 1회 섭취	1(100.0)	1(5.0)	4(2.6)	3(3.1)	0(0.0)	
	월 1회 섭취	0(0.0)	0(0.0)	3(1.9)	0(0.0)	0(0.0)	
	분기 1회 섭취	0(0.0)	2(10.0)	5(3.2)	5(5.1)	2(7.4)	
	섭취하지 않음	0(0.0)	17(85.0)	142(91.6)	87(88.8)	24(88.9)	
클로렐라	매일 섭취	0(0.0)	0(0.0)	2(1.3)	1(1.0)	0(0.0)	86.955***
	주 1회 섭취	1(100.0)	0(0.0)	1(0.6)	2(2.0)	0(0.0)	
	월 1회 섭취	0(0.0)	0(0.0)	3(1.9)	0(0.0)	0(0.0)	
	분기 1회 섭취	0(0.0)	3(15.0)	6(3.9)	5(5.1)	4(14.8)	
	섭취하지 않음	0(0.0)	17(85.0)	143(92.3)	90(91.8)	23(85.2)	
기타	매일 섭취	0(0.0)	1(5.0)	5(3.2)	9(9.2)	4(14.8)	10.999
	주 1회 섭취	0(0.0)	1(5.0)	3(1.9)	3(3.1)	0(0.0)	
	월 1회 섭취	0(0.0)	0(0.0)	1(0.6)	1(1.0)	0(0.0)	
	분기 1회 섭취	0(0.0)	2(10.0)	7(4.5)	5(5.1)	2(7.4)	
	섭취하지 않음	1(100.0)	16(80.0)	139(89.7)	80(81.6)	21(77.8)	

\*p<.05, \*\*p<.01, \*\*\*p<.001

(6)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조사대상자의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매우 높다(11.1%)에서 10-2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35.0%)에서 5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5$ ).

무기질보충제의 경우 매우 높다(7.4%)에서 10-2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보통이다(77.4%)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식이섬유보충제의 경우 매우 높다(3.7%)에서 20만원 이상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10.0%)에서 5-1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프로폴리스추출물의 경우 매우 높다(7.4%)에서 10-2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15.0%)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인삼의 경우 매우 높다(14.8%)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10.0%)에서 5-1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글루코사민의 경우 매우 높다(14.8%)에서 5-1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보통이다(92.3%)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알로에 겔의 경우 매우 높다(7.4%)에서 10-2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10.0%)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히알루론산의 경우 높다(1.0%)에서 20만원 이상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10.0%)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매우 높다(3.7%)에서 10-2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10.0%)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

클로렐라의 경우 매우 높다(3.7%)에서 10-20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았고, 낮다(10.0%)에서 5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비타민보충제, 홍삼, 오메가-3, 루테인, 밀크씨슬, 기타 품목에 1회 구매가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2.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N(%)

구분	건강 관심 정도					$\chi^2$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비타민보충제	5만원 미만	0(0.0)	8(40.0)	72(46.5)	42(42.9)	11(40.7)	7.266
	5-10만원 미만	1(100.0)	4(20.0)	29(18.7)	20(20.4)	7(25.9)	
	10-20만원 미만	0(0.0)	0(0.0)	6(3.9)	5(5.1)	1(3.7)	
	20만원 이상	0(0.0)	0(0.0)	2(1.3)	1(1.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8(40.0)	46(29.7)	30(30.6)	8(29.6)	
홍삼	5만원 미만	0(0.0)	3(15.0)	14(9.0)	12(12.2)	3(11.1)	22.329
	5-10만원 미만	0(0.0)	9(45.0)	32(20.6)	22(22.4)	4(14.8)	
	10-20만원 미만	1(100.0)	3(15.0)	13(8.4)	12(12.2)	2(7.4)	
	20만원 이상	0(0.0)	0(0.0)	10(6.5)	7(7.1)	2(7.4)	
	구매하지 않음	0(0.0)	5(25.0)	86(55.5)	45(45.9)	16(59.3)	
오메가-3	5만원 미만	0(0.0)	4(20.0)	33(21.3)	33(33.7)	5(18.5)	15.830
	5-10만원 미만	1(100.0)	2(10.0)	24(15.5)	8(8.2)	5(18.5)	
	10-20만원 미만	0(0.0)	1(5.0)	7(4.5)	4(4.1)	2(7.4)	
	20만원 이상	0(0.0)	0(0.0)	2(1.3)	1(1.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3(65.0)	89(57.4)	52(53.1)	15(55.6)	
프로바이오틱스	5만원 미만	0(0.0)	7(35.0)	47(30.3)	33(33.7)	7(25.9)	30.622*
	5-10만원 미만	1(100.0)	8(40.0)	15(9.7)	14(14.3)	5(18.5)	
	10-20만원 미만	0(0.0)	0(0.0)	6(3.9)	1(1.0)	3(11.1)	
	20만원 이상	0(0.0)	0(0.0)	3(1.9)	1(1.0)	1(3.7)	
	구매하지 않음	0(0.0)	5(25.0)	84(54.2)	49(50.0)	11(40.7)	
루테인	5만원 미만	0(0.0)	5(25.0)	31(20.0)	21(21.4)	5(18.5)	19.570
	5-10만원 미만	1(100.0)	2(10.0)	10(6.5)	7(7.1)	3(11.1)	
	10-20만원 미만	0(0.0)	0(0.0)	5(3.2)	2(2.0)	0(0.0)	
	20만원 이상	0(0.0)	0(0.0)	1(0.6)	0(0.0)	1(3.7)	
	구매하지 않음	0(0.0)	13(65.0)	108(69.7)	68(69.4)	18(66.7)	
무기질보충제	5만원 미만	0(0.0)	5(25.0)	26(16.8)	18(18.4)	7(25.9)	36.057**
	5-10만원 미만	1(100.0)	1(5.0)	8(5.2)	4(4.1)	1(3.7)	
	10-20만원 미만	0(0.0)	0(0.0)	0(0.0)	4(4.1)	2(7.4)	
	20만원 이상	0(0.0)	0(0.0)	1(0.6)	0(0.0)	1(3.7)	
	구매하지 않음	0(0.0)	14(70.0)	120(77.4)	72(73.5)	16(59.3)	
밀크씨슬	5만원 미만	0(0.0)	3(15.0)	16(10.3)	11(11.2)	3(11.1)	25.659
	5-10만원 미만	1(100.0)	2(10.0)	7(4.5)	5(5.1)	2(7.4)	
	10-20만원 미만	0(0.0)	0(0.0)	2(1.3)	1(1.0)	2(7.4)	
	20만원 이상	0(0.0)	0(0.0)	1(0.6)	0(0.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5(75.0)	129(83.2)	81(82.7)	20(74.1)	
식이섬유보충제	5만원 미만	0(0.0)	2(10.0)	13(8.4)	8(8.2)	3(11.1)	36.310**
	5-10만원 미만	1(100.0)	2(10.0)	3(1.9)	5(5.1)	1(3.7)	
	10-20만원 미만	0(0.0)	0(0.0)	1(0.6)	0(0.0)	1(3.7)	
	20만원 이상	0(0.0)	0(0.0)	2(1.3)	0(0.0)	1(3.7)	
	구매하지 않음	0(0.0)	16(80.0)	136(87.7)	85(86.7)	21(77.8)	

표 22. 건강 관심 정도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계속)

N(%)

구분	건강 관심 정도					$\chi^2$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프로폴리스추출물	5만원 미만	0(0.0)	3(15.0)	9(5.8)	8(8.2)	4(14.8)	43.179***
	5-10만원 미만	1(100.0)	1(5.0)	3(1.9)	4(4.1)	3(11.1)	
	10-20만원 미만	0(0.0)	0(0.0)	1(0.6)	2(2.0)	2(7.4)	
	20만원 이상	0(0.0)	0(0.0)	2(1.3)	0(0.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6(80.0)	140(90.3)	84(85.7)	18(66.7)	
인삼	5만원 미만	0(0.0)	2(10.0)	7(4.5)	2(2.0)	4(14.8)	45.584***
	5-10만원 미만	0(0.0)	2(10.0)	6(3.9)	6(6.1)	1(3.7)	
	10-20만원 미만	1(100.0)	0(0.0)	6(3.9)	1(1.0)	1(3.7)	
	20만원 이상	0(0.0)	0(0.0)	2(1.3)	1(1.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6(80.0)	134(86.5)	88(89.8)	21(77.8)	
글루코사민	5만원 미만	0(0.0)	2(10.0)	7(4.5)	5(5.1)	3(11.1)	34.409**
	5-10만원 미만	1(100.0)	1(5.0)	4(2.6)	4(4.1)	4(14.8)	
	10-20만원 미만	0(0.0)	0(0.0)	0(0.0)	1(1.0)	0(0.0)	
	20만원 이상	0(0.0)	0(0.0)	1(0.6)	0(0.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7(85.0)	143(92.3)	88(89.8)	20(74.1)	
알로에 겔	5만원 미만	0(0.0)	2(10.0)	7(4.5)	5(5.1)	1(3.7)	37.386**
	5-10만원 미만	1(100.0)	2(10.0)	5(3.2)	3(3.1)	2(7.4)	
	10-20만원 미만	0(0.0)	0(0.0)	0(0.0)	2(2.0)	2(7.4)	
	20만원 이상	0(0.0)	0(0.0)	1(0.6)	1(1.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6(80.0)	142(91.6)	87(88.8)	22(81.5)	
히알루론산	5만원 미만	0(0.0)	2(10.0)	7(4.5)	6(6.1)	1(3.7)	40.066***
	5-10만원 미만	1(100.0)	3(15.0)	2(1.3)	3(3.1)	3(11.1)	
	10-20만원 미만	0(0.0)	0(0.0)	1(0.6)	0(0.0)	0(0.0)	
	20만원 이상	0(0.0)	0(0.0)	1(0.6)	1(1.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5(75.0)	144(92.9)	88(89.8)	23(85.2)	
프락토올리고당	5만원 미만	0(0.0)	2(10.0)	9(5.8)	6(6.1)	2(7.4)	37.128**
	5-10만원 미만	1(100.0)	1(5.0)	3(1.9)	4(4.1)	1(3.7)	
	10-20만원 미만	0(0.0)	0(0.0)	0(0.0)	1(1.0)	1(3.7)	
	20만원 이상	0(0.0)	0(0.0)	1(0.6)	0(0.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7(85.0)	142(91.6)	87(88.8)	23(85.2)	
클로렐라	5만원 미만	0(0.0)	2(10.0)	6(3.9)	4(4.1)	1(3.7)	42.679***
	5-10만원 미만	1(100.0)	1(5.0)	3(1.9)	4(4.1)	2(7.4)	
	10-20만원 미만	0(0.0)	0(0.0)	0(0.0)	0(0.0)	1(3.7)	
	20만원 이상	0(0.0)	0(0.0)	2(1.3)	0(0.0)	0(0.0)	
	구매하지 않음	0(0.0)	17(85.0)	144(92.9)	90(91.8)	23(85.2)	
기타	5만원 미만	0(0.0)	2(10.0)	10(6.5)	11(11.2)	2(7.4)	10.147
	5-10만원 미만	0(0.0)	2(10.0)	5(3.2)	5(5.1)	2(7.4)	
	10-20만원 미만	0(0.0)	0(0.0)	1(0.6)	0(0.0)	1(3.7)	
	20만원 이상	0(0.0)	0(0.0)	1(0.6)	0(0.0)	0(0.0)	
	구매하지 않음	1(100.0)	16(80.0)	138(89.0)	82(83.7)	22(81.5)	

\*p<.05, \*\*p<.01, \*\*\*p<.001



## 6)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 (1)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에 제시하였다.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 경험은 고관심가치집단(23.1%)에서 ‘있다’의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93.1%)에서 ‘없다’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는 고관심가치집단(71.9%)에서 ‘효과 있다’의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52.9%)에서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 섭취 동기, 구매자, 구입처,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3.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군집		χ <sup>2</sup>
구분		고관심가치집단	저관심가치집단	
건강기능식품 관심도	아주 많다	39(19.6)	20(19.6)	3.363
	보통이다	126(63.3)	56(54.9)	
	그저 그렇다	30(15.1)	22(21.6)	
	관심 없다	4(2.0)	4(3.9)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	잘 알고 있다	18(9.0)	10(9.8)	0.348
	보통이다	96(48.2)	52(51.0)	
	조금 알고 있다	60(30.2)	28(27.5)	
	잘 모른다	25(12.6)	12(11.8)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 경험	있다	46(23.1)	7(6.9)	12.279***
	없다	153(76.9)	95(93.1)	
섭취에 가장 중요한 동기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99(49.7)	63(61.8)	4.340
	지인의 권유	60(30.2)	23(22.5)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권유	8(4.0)	3(2.9)	
	방문판매원의 권유	1(0.5)	0(0.0)	
	각종 매체	29(14.6)	12(11.8)	
	기타	2(1.0)	1(1.0)	
구매자	직접 구입	155(77.9)	76(74.5)	0.579
	배우자	20(10.1)	11(10.8)	
	배우자 이외의 가족	17(8.5)	10(9.8)	
	친구 또는 지인	7(3.5)	5(4.9)	
건강기능식품 주 구입처	대형마트	3(1.5)	2(2.0)	6.838
	전문판매점	27(13.6)	18(17.6)	
	홈쇼핑 또는 인터넷	142(71.4)	64(62.7)	
	방문판매	7(3.5)	4(3.9)	
	약국	15(7.5)	14(13.7)	
	드럭스토어	5(2.5)	0(0.0)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확인한다	124(62.3)	53(52.0)	2.982
	확인하지 않는다	75(37.7)	49(48.0)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	효과 있다	143(71.9)	47(46.1)	19.617***
	효과 없다	2(1.0)	1(1.0)	
	잘 모르겠다	54(27.1)	54(52.9)	

\*\*\*p<.001

(2)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4에 제시하였다. 홍삼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32.2%)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63.7%)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54.3%)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43.1%)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기타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89.4%)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9.8%)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비타민보충제, 오메가-3, 루테인, 무기질보충제, 밀크씨슬, 식이섬유보충제, 프로폴리스추출물, 인삼, 글루코사민, 알로에 겔, 히알루론산, 프락토올리고당, 클로렐라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4.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구분	군집		$\chi^2$	
	고관심가치집단	저관심가치집단		
비타민보충제	매일 섭취	106(53.3)	46(45.1)	6.579
	주 1회 섭취	21(10.6)	19(18.6)	
	월 1회 섭취	9(4.5)	7(6.9)	
	분기 1회 섭취	5(2.5)	5(4.9)	
	섭취하지 않음	58(29.1)	25(24.5)	
홍삼	매일 섭취	64(32.2)	8(7.8)	24.832***
	주 1회 섭취	24(12.1)	12(11.8)	
	월 1회 섭취	11(5.5)	6(5.9)	
	분기 1회 섭취	21(10.6)	11(10.8)	
	섭취하지 않음	79(39.7)	65(63.7)	
오메가-3	매일 섭취	61(30.7)	26(25.5)	1.043
	주 1회 섭취	14(7.0)	8(7.8)	
	월 1회 섭취	4(2.0)	2(2.0)	
	분기 1회 섭취	9(4.5)	6(5.9)	
	섭취하지 않음	111(55.8)	60(58.8)	
프로바이오틱스	매일 섭취	67(33.7)	44(43.1)	9.804*
	주 1회 섭취	16(8.0)	10(9.8)	
	월 1회 섭취	3(1.5)	3(2.9)	
	분기 1회 섭취	5(2.5)	7(6.9)	
	섭취하지 않음	108(54.3)	38(37.3)	

N(%)

표 24.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 (계속)

N(%)

구분		군집		$\chi^2$
		고관심가치집단	저관심가치집단	
루테인	매일 섭취	35(17.6)	14(13.7)	1.046
	주 1회 섭취	10(5.0)	4(3.9)	
	월 1회 섭취	8(4.0)	4(3.9)	
	분기 1회 섭취	12(6.0)	7(6.9)	
	섭취하지 않음	134(67.3)	73(71.6)	
무기질보충제	매일 섭취	31(15.6)	14(13.7)	4.802
	주 1회 섭취	8(4.0)	7(6.9)	
	월 1회 섭취	5(2.5)	3(2.9)	
	분기 1회 섭취	5(2.5)	7(6.9)	
	섭취하지 않음	150(75.4)	71(69.6)	
밀크씨슬	매일 섭취	16(8.0)	10(9.8)	2.371
	주 1회 섭취	7(3.5)	3(2.9)	
	월 1회 섭취	4(2.0)	2(2.0)	
	분기 1회 섭취	8(4.0)	8(7.8)	
	섭취하지 않음	164(82.4)	79(77.5)	
식이섬유보충제	매일 섭취	10(5.0)	2(2.0)	3.886
	주 1회 섭취	9(4.5)	3(2.9)	
	월 1회 섭취	4(2.0)	3(2.9)	
	분기 1회 섭취	7(3.5)	7(6.9)	
	섭취하지 않음	169(84.9)	87(85.3)	
프로폴리스추출물	매일 섭취	8(4.0)	3(2.9)	5.159
	주 1회 섭취	7(3.5)	1(1.0)	
	월 1회 섭취	3(1.5)	0(0.0)	
	분기 1회 섭취	11(5.5)	10(9.8)	
	섭취하지 않음	170(85.4)	88(86.3)	
인삼	매일 섭취	1(0.5)	0(0.0)	3.087
	주 1회 섭취	6(3.0)	1(1.0)	
	월 1회 섭취	5(2.5)	1(1.0)	
	분기 1회 섭취	16(8.0)	11(10.8)	
	섭취하지 않음	171(85.9)	89(87.3)	
히알루론산	매일 섭취	3(1.5)	2(2.0)	1.109
	주 1회 섭취	4(2.0)	1(1.0)	
	월 1회 섭취	2(1.0)	1(1.0)	
	분기 1회 섭취	11(5.5)	8(7.8)	
	섭취하지 않음	179(89.9)	90(88.2)	
프락토올리고당	매일 섭취	3(1.5)	2(2.0)	7.089
	주 1회 섭취	8(4.0)	1(1.0)	
	월 1회 섭취	3(1.5)	0(0.0)	
	분기 1회 섭취	6(3.0)	8(7.8)	
	섭취하지 않음	179(89.9)	91(89.2)	
클로렐라	매일 섭취	3(1.5)	0(0.0)	4.116
	주 1회 섭취	3(1.5)	1(1.0)	
	월 1회 섭취	3(1.5)	0(0.0)	
	분기 1회 섭취	10(5.0)	8(7.8)	
	섭취하지 않음	180(90.5)	93(91.2)	
기타	매일 섭취	9(4.5)	10(9.8)	10.124*
	주 1회 섭취	4(2.0)	3(2.9)	
	월 1회 섭취	0(0.0)	2(2.0)	
	분기 1회 섭취	8(4.0)	8(7.8)	
	섭취하지 않음	178(89.4)	79(77.5)	

\*p<.05, \*\*\*p<.001

(3)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표 25에 제시하였다. 홍삼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7.5%)에서 20만원 이상인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67.6%)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기타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91.5%)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14.7%)에서 5만원 미만인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

비타민보충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무기질보충제, 밀크씨슬, 식이섬유보충제, 프로폴리스추출물, 인삼, 글루코사민, 알로에 겔, 히알루론산, 프락토올리고당, 클로렐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5.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구분	군집		$\chi^2$	
	고관심가치집단	저관심가치집단		
비타민보충제	5만원 미만	89(44.7)	44(43.1)	6.697
	5-10만원 미만	34(17.1)	27(26.5)	
	10-20만원 미만	11(5.5)	1(1.0)	
	20만원 이상	2(1.0)	1(1.0)	
	구매하지 않음	63(31.7)	29(28.4)	
홍삼	5만원 미만	26(13.1)	6(5.9)	18.744***
	5-10만원 미만	50(25.1)	17(16.7)	
	10-20만원 미만	25(12.6)	6(5.9)	
	20만원 이상	15(7.5)	4(3.9)	
	구매하지 않음	83(41.7)	69(67.6)	
오메가-3	5만원 미만	50(25.1)	25(24.5)	1.082
	5-10만원 미만	26(13.1)	14(13.7)	
	10-20만원 미만	11(5.5)	3(2.9)	
	20만원 이상	2(1.0)	1(1.0)	
	구매하지 않음	110(55.3)	59(57.8)	
프로바이오틱스	5만원 미만	54(27.1)	40(39.2)	8.167
	5-10만원 미만	25(12.6)	18(17.6)	
	10-20만원 미만	7(3.5)	3(2.9)	
	20만원 이상	4(2.0)	1(1.0)	
	구매하지 않음	109(54.8)	40(39.2)	
루테인	5만원 미만	41(20.6)	21(20.6)	3.902
	5-10만원 미만	15(7.5)	8(7.8)	
	10-20만원 미만	7(3.5)	0(0.0)	
	20만원 이상	1(0.5)	1(1.0)	
	구매하지 않음	135(67.8)	72(70.6)	
무기질보충제	5만원 미만	35(17.6)	21(20.6)	2.012
	5-10만원 미만	8(4.0)	7(6.9)	
	10-20만원 미만	4(2.0)	2(2.0)	
	20만원 이상	1(0.5)	1(1.0)	
	구매하지 않음	151(75.9)	71(69.6)	

표 25.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 (계속)

N(%)

구분	군집		$\chi^2$	
	고관심가치집단	저관심가치집단		
밀크씨슬	5만원 미만	22(11.1)	11(10.8)	5.089
	5-10만원 미만	9(4.5)	8(7.8)	
	10-20만원 미만	2(1.0)	3(2.9)	
	20만원 이상	0(0.0)	1(1.0)	
	구매하지 않음	166(83.4)	79(77.5)	
식이섬유보충제	5만원 미만	17(8.5)	9(8.8)	0.667
	5-10만원 미만	9(4.5)	3(2.9)	
	10-20만원 미만	1(0.5)	1(1.0)	
	20만원 이상	2(1.0)	1(1.0)	
	구매하지 않음	170(85.4)	88(86.3)	
프로폴리스추출물	5만원 미만	16(8.0)	8(7.8)	0.323
	5-10만원 미만	8(4.0)	4(3.9)	
	10-20만원 미만	3(1.5)	2(2.0)	
	20만원 이상	1(0.5)	1(1.0)	
	구매하지 않음	171(85.9)	87(85.3)	
인삼	5만원 미만	11(5.5)	4(3.9)	4.966
	5-10만원 미만	12(6.0)	3(2.9)	
	10-20만원 미만	4(2.0)	5(4.9)	
	20만원 이상	1(0.5)	2(2.0)	
	구매하지 않음	171(85.9)	88(86.3)	
클루코사민	5만원 미만	12(6.0)	5(4.9)	2.637
	5-10만원 미만	9(4.5)	5(4.9)	
	10-20만원 미만	1(0.5)	0(0.0)	
	20만원 이상	0(0.0)	1(1.0)	
	구매하지 않음	177(88.9)	91(89.2)	
알로에 겔	5만원 미만	10(5.0)	5(4.9)	4.203
	5-10만원 미만	8(4.0)	5(4.9)	
	10-20만원 미만	3(1.5)	1(1.0)	
	20만원 이상	0(0.0)	2(2.0)	
	구매하지 않음	178(89.4)	89(87.3)	
히알루론산	5만원 미만	9(4.5)	7(6.9)	5.635
	5-10만원 미만	7(3.5)	5(4.9)	
	10-20만원 미만	1(0.5)	0(0.0)	
	20만원 이상	0(0.0)	2(2.0)	
	구매하지 않음	182(91.5)	88(86.3)	
프락토올리고당	5만원 미만	11(5.5)	8(7.8)	3.639
	5-10만원 미만	7(3.5)	3(2.9)	
	10-20만원 미만	2(1.0)	0(0.0)	
	20만원 이상	0(0.0)	1(1.0)	
	구매하지 않음	179(89.9)	90(88.2)	
클로렐라	5만원 미만	8(4.0)	5(4.9)	0.908
	5-10만원 미만	7(3.5)	4(3.9)	
	10-20만원 미만	1(0.5)	0(0.0)	
	20만원 이상	1(0.5)	1(1.0)	
	구매하지 않음	182(91.5)	92(90.2)	
기타	5만원 미만	10(5.0)	15(14.7)	17.082**
	5-10만원 미만	7(3.5)	7(6.9)	
	10-20만원 미만	0(0.0)	2(2.0)	
	20만원 이상	0(0.0)	1(1.0)	
	구매하지 않음	182(91.5)	77(75.5)	

\*\*p<.01, \*\*\*p<.001

## 5.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 1)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대해 제품성분(4.60), 실제효능 여부(4.59), 제품의 과학적 자료(4.48), 섭취와 휴대의 간편성(4.23), 제품의 브랜드(3.69), 향(3.66), 맛(3.61), 광고 여부(3.14) 순으로 나타났다(표 26).

표 26.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

구분	M±SD <sup>1)</sup>	순위
맛	3.61±0.93	7
향	3.66±0.91	6
제품성분	4.60±0.57	1
실제효능 여부	4.59±0.60	2
제품의 과학적 자료	4.48±0.67	3
섭취와 휴대의 간편성	4.23±0.78	4
제품의 브랜드	3.69±0.89	5
광고 여부	3.14±0.94	8

1) 5점 척도 : (1점 : 전혀 중요치 않다, 5점 : 매우 중요하다)

2)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하였고 고관심가치집단(4.06)이 저관심가치집단(3.89)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1$ ). 맛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3.74)이 저관심가치집단(3.36)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1$ ), 제품의 브랜드도 고관심가치집단(3.81)이 저관심가치집단(3.46)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 < .01$ ), 광고 여부에 있어서도 고관심가치집단(3.32)이 저관심가치집단(2.79)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1$ ).

표 27.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

항목	소비가치		t
	Mean±SD		
	고관심가치집단 (n=199)	저관심가치집단 (n=102)	
맛	3.74±0.84	3.36±1.04	3.161**
향	3.73±0.84	3.51±1.00	1.932
제품성분	4.56±0.61	4.68±0.49	-1.751
실제효능 여부	4.55±0.61	4.68±0.57	-1.750
제품의 과학적 자료	4.45±0.66	4.54±0.68	-1.064
섭취와 휴대의 간편성	4.28±0.70	4.14±0.91	1.524
제품의 브랜드	3.81±0.82	3.46±0.97	3.146**
광고 여부	3.32±0.87	2.79±0.96	4.794***
전체 평균	4.06±0.47	3.89±0.47	2.849**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의 건강관련사항,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59.8%, 남자 40.2%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가 22.3%, 30대 20.1%, 40대 19.8%, 50대 21.7%, 60대 16.2%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 3.0%, 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재학 포함) 24.3%, 대학교 졸업(전문대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 64.5%, 대학원 수료 이상(대학원 졸업 포함) 8.3%로 나타났고, 현재 거주형태는 자택 90.4%, 자취 7.6%, 기숙사/사택 2.0%로 나타났다. 가구 형태는 4인 이상 가족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전문직이 29.6%로 가장 많았으며, 월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건강관련 사항에 대해서 음주 빈도는 술을 마셔 본 적이 없는 대상이 8.6%, 한 달에 1번 정도 21.6%, 한 달에 2-4번 30.6%, 일주일에 2-3번 정도 21.9%, 일주일에 4번 이상 3.7%, 과거에는 마셨지만 현재 마시지 않는 대상이 13.6%로 나타났고, 흡연 여부는 피우지 않는 대상이 79.1%, 가끔 피우는 대상 6.6%, 과거에는 피웠지만 현재 피우지 않는 대상이 8.3%, 하루에 반 갑 이상이 6.0%로 나타났다.

하루 취침 시간은 5시간 미만이 5.3%, 5-7시간 미만이 68.1%, 7시간 이상이 26.6%로 나타났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는 거의 느끼지 않는 대상이 10.0%, 조금 느끼는 편 56.8%, 많이 느끼는 편 29.2%,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 4.0%로 나타났다.

건강 관심 정도는 '보통이다'가 51.5%로 가장 많았고, '높다' 32.6%, '매우 높다' 9.0%, '낮다' 6.6%, '매우 낮다' 0.3% 순이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 정도는 '보통이다'가 58.1%로 가장 많았고, '좋다' 20.9%, '나쁘다' 17.6%, '매우 나쁘다'와 '매우 좋다'가 각각 1.7%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소비가치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5개의 요인은 ‘사회적 소비가치’, ‘인지적 소비가치’, ‘감정적 소비가치’, ‘기능적 소비가치’, ‘상황적 소비가치’라고 명명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하여 2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의 경우 상황적,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소비가치가 높게 나타나 고관심가치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2의 경우 군집1 보다 상황적,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소비가치가 낮게 나타나 저관심가치집단이라고 명명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일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성별( $p<.001$ ), 연령( $p<.001$ ), 최종학력( $p<.05$ ), 현재 거주형태( $p<.001$ ), 가구 형태( $p<.05$ ), 직업( $p<.001$ ), 월 소득(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60.5%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인지 정도는 ‘보통이다’ 49.2%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 경험은 경험이 없는 대상이 82.4%로 경험이 있는 17.6%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취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53.8%로 가장 많았고, 구매자는 직접 구입이 76.7%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주 구입처는 홈쇼핑 또는 인터넷이 68.4%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가장 중요 이유는 건강 유지가 50.5%로 가장 많았고, 영양 보충 26.9%, 질병 예방 및 치료 17.8% 미용효과 4.5%,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는 확인하는 대상이 58.8%로 확인하지 않는 대상 41.2%에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는 ‘효과가 있다’가 63.1%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 35.9%, ‘효과 없다’ 1.0%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 경험은 고관심가치집단(23.1%)에서 ‘있다’의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93.1%)에서 ‘없다’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는 고관심가치집단(71.9%)에서 ‘효과 있다’의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52.9%)에서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여섯째,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섭취 빈도에 있어서는 홍삼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32.2%)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63.7%)에

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54.3%)에서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43.1%)에서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1회 구매가격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홍삼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7.5%)에서 20만원 이상인 비율이 높았고, 저관심가치집단(67.6%)에서 구매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일곱째, 조사대상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의 중요도는 제품성분 4.60점 (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실제효능 여부(4.59), 제품의 과학적 자료(4.48), 섭취와 휴대의 간편성(4.23), 제품의 브랜드(3.69), 향(3.66), 맛(3.61), 광고 여부(3.1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는 고관심가치집단(4.06)이 저관심가치집단(3.89)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1$ ). 맛의 경우 고관심가치집단(3.74)이 저관심가치집단(3.36)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p < .01$ ), 제품의 브랜드도 고관심가치집단(3.81)이 저관심가치집단(3.46)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 < .01$ ), 광고 여부에 있어서도 고관심가치집단(3.32)이 저관심가치집단(2.79)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 < .001$ ).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있어서 2개의 군집이 추출되었고, 군집별로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에 차이를 보여 이를 고려한 건강기능식품 홍보 또는 교육자료 개발 등 소비자들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에 따른 선택속성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고관심가치집단과 저관심가치집단이 맛, 제품의 브랜드, 광고 여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건강기능식품업계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I. 참고문헌

1. 김동훈, 권승구, 한귀덕, 지인배.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특성 요인 분석. 한국식품유통학회, 38.1 (2021): 23-42.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3조.  
<https://www.law.go.kr>
3. 김소영, 유정순, 장경자. 인천지역 대학생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와 건강기능식품 섭취 유무에 따른 식습관, 식이 섭취 및 식사의 질 조사. 한국영양학회, 46.2 (2013): 166-176.
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2020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  
<https://www.mfds.go.kr>
5.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통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8기 2차년도.  
<http://www.kdca.go.kr>
6. 송경은, 20·30대 일부 성인의 건강관심도 및 건강기능식품섭취 실태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7. 차명화, 김유경. 건강기능식품 소비가치와 구매의도의 관계에 대한 건강동기, 건강염려, 식품물입의 조절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7.11 (2008): 1435-1442.
8. 노원희, 안승호, 양링링, 송영욱. 중국 소비자의 소비가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중사회과학연구, 10.2 (2012): 179-206.
9. Keeney, R. L., Raiffa, H. 1993. Decisions with multiple objectives: preferences

and value tradeoff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감민주, 엄미향, 계승희. 노인의 건강기능식품 섭취 실태와 영양지수를 이용한 식사의 질 및 영양 평가. 한국식생활문화학회, 34.4 (2019): 474-485.

11. 허창기. 특집 (1) : 신바이오텍스를 활용한 노인건강기능식품 시장진입 전략. 식품저장과 가공산업 13.1 (2014): 3-16.

12. 이명숙, 김숙웅. 실버층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약학회지, 25.4 (2015): 286-295.

13.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https://www.mfds.go.kr>

14. 김영순, 최병범. 경기북부지역 대학생의 건강기능식품 인식 및 섭취 실태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 29.2 (2016): 206-217.

15. 정지은, 김성은. 경기지역 IT 분야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건강기능식품 선택속성 및 소비가치의 관계. 한국영양학회, 53.1 (2020): 54-67.

16. 온정, 김정희. 성인의 연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섭취실태와 정보 요구도 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7.1 (2012): 26-37.

17. 현다희, 제주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가치에 따른 커피전문점에서의 당류 섭취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8. Pitts, R. E., & Woodside, A. G.(1983). Personal value influences on consumer product class and brand prefere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9(1), 37-53.

19. 우이식, 개인가치에 따른 베이커리 소비성향이 선택속성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0. O. T. Ahtola(1985), "Hedonic and Utilitarian Aspects of Consumer Behavior : An Attitude Perspectiv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12 No.1, p. 8
21. Sheth, J. N. et al. 1991. Why We Buy What We Buy: A Theory of Consumption Valu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2(2): 159-170
22. 박준석, 소비가치와 웰빙관련가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매목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23. 최진경, 개인적 가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한식당 선택속성 및 행동의도간의 구조적 관계,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4. 양링링, 중국 건강기능식품의 태도와 구매의도의 결정요인 -구전효과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5. 장은지, 김기욱, 현대 소비자의 소비가치는 소비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가? - 여대생 소비자의 소비지향성과 소비목적에 따른 4가지 소비상황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지, 2018; 29(1): 83-107.
26. 이혜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식품산업과 영양*, 18.1 (2013): 1-7.
27. 신승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통계상담* 19.2 (2006): 61-73.
28. 설상철, 박우진, 우승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선택속성과 소비행동에 따른 차이 분석. *관광레저연구*, 26.1 (2014): 463-482.

Abstract

## A Study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Health Functional Food by Consumption value of Adults in Jeju

Ji-Su Han

Department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s by consumption value and selection attributes importance of 346 adults in Jeju surveyed from April 4 to April 27, 2022 with the aim of providing basic data for consumers to seek the ways of properly consuming the health functional food. A total of 301 questionnaires out of 346 were used as base data for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luste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hi^2$ -test, t-test, ANOVA using the SPSS Win program (version 25.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included for male 40.2% and female 59.8%, and aged in 20s 22.3%, the university graduates 64.5%, 90.4% own house, household type 42.2% household with more than four people, specialized occupations 29.6%, average monthly income of less than 2 to 3 million won 40.9% showed a high proportion.

Second, regarding the highest portion among the items that are related to health, 2-4 times in drinking frequency per month accounted for 30.6%, those who do not smoke accounted for 79.1%, those who have a bedtime of less than 5-7 hours a day accounted for 68.1%, those who feel light stress in daily life

accounted for 56.8%, those who have a 'normal interest' in their own health status accounted for 51.5%, and those who think of 'normal' for their own health status accounted for 58.1%.

Third, five factors were derived for the consumption value of those surveyed, and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the subject were divided into 2 groups by cluster analysis: high interest value group, low interest value group. regarding a result of general matters according to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 $p<.001$ ), age ( $p<.001$ ), educational background ( $p<.05$ ), household type ( $p<.001$ ), Type of residence ( $p<.05$ ), job ( $p<.001$ ) and average monthly incomeand ( $p<.05$ ).

Fourth, regarding a result of intake status analysis according to health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the rate of 'ha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 interest value group (23.1%) than in the low interest value group (6.9%) ( $p<.001$ ). in the case of health functional food promotion or educational experience. In addition, regarding the effect after intake of health functional food, the rate of 'effective' was high in the high interest value group (71.9%) and the rate of 'not sure' was high in the low interest value group (52.9%), indic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001$ ).

Fifth, regarding to the intake frequency by health functional food items for the functional food consumption value, the high interest value group exhibited a high rate (32.2%) of daily intake of Red Ginseng and low interest value group exhibited a high rate (63.7%) of not taking the Red Ginseng, indic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0.01$ ). The rate of daily intake of probiotics in the low interest value group accounted for 43.1%, which was significantly high ( $p<.05$ ). Regarding the one-time purchase price of health functional food according to their consumption value, the rate of purchasing Red Ginseng more than 200 thousand was high (7.5%) in the high interest value group and the rate of not purchasing was high (67.6%) in the low interest value group, indic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p< .001$ ).

Sixth, with regard to the importance of health functional food selection



attributes, ingredient of product showed the highest score at 4.60 (out of 5), and actual efficacy (4.59), scientific data (4.48), ease of intake and carrying (4.23), brand (3.69), fragrance (3.66), taste (3.61), advertisement (3.14) for the specific product. The entire selection attributes exhibited higher in the high interest value group (4.06) than in the low interest value group (3.89), indicating a significant difference ( $p < .01$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wo clusters were extracted from the consumption value of health functional food in the survey subjects, and the actual intake of health functional food revealed a difference between clust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measures to ensure the correct intake of health functional food by consumers, such as the promotions of health functional food 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aterials considering that. Moreover, even i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importance of selection attributes according to the consumption value of health functional foo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exhibited between the high interest value group and the low interest value group in taste, product brand, and advertisement.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e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needs to develop products that meet the needs of consumers by reflecting those results.